HANURI TOUR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77.890.5913~4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310·538·3333 samsungmoving.com

Tel. 213-739-0403 Fax. 213-402-5136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February 20, 2014 Vol. 423

성경의 룻기가 그림이 되어 우리를 찾아왔다. 동양화가 유혜은 화백의 전시회가 미주복음방송 4층 세미나실에서 28일까지 열리고 있다. 그림 제목은 '여호와께서 당신이 한 일을 갚아주실 것이오' (관련기사 3면)

"앞에서 막지 않았다면 살아 돌아올 수 없었을 것"

이집트 시나이반도에서 폭탄테러를 당한 성지순례단 중 15명이 19일(한국시간) 오후 1차 귀국한 가운데 진천중앙교회에 도착, 교인들과 예배를 드린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임정순 권사(50)가 대표로 나섰다. 임 권사는 소회를 묻는 첫 질문에 "어쨌든 한국에 와서 기쁘고 좋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8년간 간호사로 근무했다는 임 권사는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 그런지 비교적 침착한 모습이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알려진 대로 성지순례단을 태운 버스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국경에 도착, 버스를 갈아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위해 짐을 챙기던 중 갑자기 '펑' 소리와 함께 엄청난 압력을 느꼈다고 한다. 가스폭발 같은 굉음 후 버스에는 모든 창문과 지붕이 날아간 사실을 느꼈을 때까지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연이어 총을 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 때 버스 앞쪽에 불이 나기 시작해 총에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모두 내려 피했지만, 수많은 사람들 중 적군과 아군 여부를 구별할 수 없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번 사고 당시 故 제진수 블루스카이 트래블 대표는 테러범을 발견한 뒤 밀쳐냈고, 故 김진규 목사는 파편을 온 몸으로 막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권사는 "사고 당시 경황은 없었지만, 응급조치를 하면서 (사람들의 부상 정도 등을 보고) 들었던 생각은 '앞에서 누군가 막지 않았다면 이렇게 살 수 없었겠다'는 것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사망자들에 대해서는 "교감을 나누던 분들(가이드)이 돌아가시고 저는 살아서 죄책감이 든다"며 "친절히 잘해 주셨는데, 사고 이후 이를 생각나면 계속 눈물이 나고 (사고 당시를) 생각하지 않으려 서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러다가도 조용히 있으면 또 생각이 난다"고 했다.

류재광 기자

바람직한 예배 음악의 키워드는 "균형"

"미국 클래식 음악회에 가면 다 머리가 백발이다. 젊은이들은 입장료 일이백 불을 내고 팝가수 콘서트 장에 가서 열광한다. 이런 젊은이들이 교회를 채우고 있는데 옛날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공감할까? 기성교인들은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13일 목요일 저녁에 미국 월드미션대학이 개교 25주년을 맞아 개최한 예배 음악 심포지엄에 참가한 이기선 교수의 말이다.

대중음악의 교회의 수용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미국 내 한인교회 중에는 이에 대한 방향성이 올바로 정립되지 못한 채 여전히 갈등과 혼선을 빚고 있는 교회들이 존재한다. 이 갈등을 정리하고 교회 음악이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월드미션대학은 "오늘날 한국과 미주한인 교회 예배 음악의 현주소,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제 3회 예배음악 심포지엄을 열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기선 교수는 열린 예배의 형태가 확산되고 대중음악이 교회 음악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교회 예배음악의 현주소"에 대해 설명했다. 줄리아드, 애리조나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현재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로 재직하며 대구 시립합창단, 율 첼버 콰이어 오케스트라에서 지휘를 맡고, 서울 사랑의 교회 음악 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전국 대학합창연합회 회장, 전국 시립합창단 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K-Pop 열풍 및 뮤지컬 확산을 지적하며 교회가 이런 흐름을 알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음악이 젊은이들의 우상이다. 클래식 음악은 경쟁력이 점점 줄어드나 CCM은 경쟁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2면에 계속

동성애 유전자 존재? 사회·정신적 요소가 더 영향

시카고에 소재한 미국과학발전협회(AAAS,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가 동성애 성향에 관해 "유전적인 요소, 정신적, 사회적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다.

1848년 창립된 이 단체는 12만7천명의 과학자가 소속된 비영리기구로 세계 과학자들의 연합과 연구의 자유, 과학적 책임 및 교육의 증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단체가 지난 목요일 발표한 이 연구 결과는 마이클 베일리 박사가 주도했다. 노스웨스턴대학교의 심리학자인 그는 동성애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보수주의자와 동성애 지지자들 모두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아온 인물이다. 그는 게이 남성의 X염색체 중 특정 위치에 동성애의 유전에 관한 Xq28 유전자가 있으며 8번 염색체도 이에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유전자가 영향을 미치지만 결정적이지 않으며 다른 환경적인 요소가 분명히 관련돼 있다"고 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Xq28 유전자를 가진 남성이 동성애에 끌릴 확률은 약 40%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3면에 계속

ASE CERTIFIED 나라정비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CMM 기독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제2차 파노라마 성경연구 세미나

성경의 맥을 잡아주는 제1회 파노라마 성경연구 세미나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속에 잘 마쳤습니다. 제 2회 파노라마 성경연구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경이 어렵게만 느껴지십니까?
성경을 읽기만 하면 잠이 오십니까?
아직도 성경을 완독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여기 성경의 산맥과 광맥을 찾아주는
성경연구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성경 통독이 쉬워 질 것입니다.

- 대 상 : 성경에 관심있는 평신도, 신학생, 목회자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 장 소 : 남가주 선린교회 (2836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05)
- 일 시 : 2014년 2월 25일부터 매주 화요일 7:30PM (12주간)
- 강 사 : 강기운 목사(남가주 선린교회시무)
- 연락처 : 213.949.2797

바람직한 예배 음악의 키워드는 "균형"

월드미션대 심포지엄 열려…교회 현실과 밀접한 논의 이뤄져

» 1면에 이어서

이어 그들의 문화적 요구를 받아들이며 기성 교인들과의 갈등과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배를 '찬양이 배제된 정통 예배', '찬양을 포함한 정통 예배', '열린 예배 형식'의 세가지 형태로 구분해 드릴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미국교회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서로를 적대시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가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미주 한인교회 예배음악의 현주소, 그리고 미래"의 발제를 맡은 정유성 목사는 한국 광림교회에서 '유다지파'와 '부흥한국' 사역을 했고 미국에서는 '화요 찬양 모임'과 '북미주 KOSTA'를 섬겼다. 현재 얼바인 베델한인교회에서 찬양사역을 하며 월간 찬양 예배 '프뉴마 워십'의 대표로 섬기고 있다.

그는 현대 예배의 흐름을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파이프 오르간과 피아노"로 구성됐던 예배 형식이 "현대적 감각의 찬양단, 밴드, 신디사이저"로 대체되고 있다며, 레이스 앤더슨의 논의를 바탕으로 "예배의 틀과 형식 속에 시대와 사람과 문화까지 모두 끼워 맞추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회중이 가장 편하게 호흡할 수 있는 박자와 리듬"으로 예배하기 위해 오늘날의 예배 형식이 등장하게 되었다며 현대 예배의 등장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베네딕트, 밀러의 논의를 제시하며 "동시대적인 사람들의 문화와 시대적인 요청에 민감하게 반응하되 기독교의 진리를 양보하지 않고 최선의 문화적 도구와 제재를 사용하는 예배"로 현대 예배를 정의했다.

이기선 교수

정유성 목사

그는 미국 내 한인교회의 예배 현황에서 악기 사용 및 장르 활용의 문제를 화두로 삼았다. 시편에서 그 당시 사용되던 모든 악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로 비추어 보아 "지금 이 시대에 사용되는 모든 악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보수적인 교회에서 꽹과리, 장구, 징, 북을 들고 굿거리 장단으로 찬양을 해서 문제가 된 경우를 제시했다. 그러나 악기는 가치 중립적이며 장르도 효과적인 도구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악기나 장르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보다는 '누가 사용하는가', '악기들 간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용에 있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악기가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요리를 할 때도 다양한 도구가 존재하지만 그 중 조심히 다뤄야 하는 도구가 있듯,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사용해야 하는 악기가 존재한다. 전자 기타의 디스토션 사운드(전자 기타에서 발생하는 묵직하고 일그러진 소리 등 록 음악의 표현 방식 중 일부)처럼 거칠고 강한 소리, 색소폰처럼 자유로운 음계를 내는 악기, 트로트 음악의 기교 등은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교회음악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담임목회자가 이런 변화를 인식하고 변화를 수용해 줄" 것과 "이에 대한 지원과 동참"이 이뤄질 것, "예배 음악 전문사역자를 발굴하고 훈련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과 "예배 음악가와 담임목회자 간의 자유로운 대화와 소통"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발표 이후 월드미션대 음악과 윤임상 교수의 사회로 토의가 이어졌다. 토의에서는 찬송가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 특정 장르와 악기 사용에 있어서의 한계, 국악과의 접목, 현대음악과 클래식음악의 균형 문제가 제기됐다. 다음은 토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질문 : 교회 음악의 방향, 왜 우리는 찬송가를 사용하려 하지 않는가? 왜 600여 곡의 찬송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려 하는가?

(이기선 교수)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저는 퇴장할 때 찬송가를 부른다. 고집스럽게 찬송가를 하는 이유는 그 찬송가는 수백 년을 지나오면서 도태되고 살아남은 보고들이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은 찬송가가 익숙하지 않아 찬송가를 부르지 않으며 자연히 교회도 찬송가를 부르지 않게 됐다. 이는 편향된 자세이기에 이 두 가지를 공존시켰으면 좋겠다. 요새 부르기 어려운 곡을 제외하고 요새도 공감할 수 있는 곡을 발굴해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유성 목사) 찬송가 가사는 깊이가 있지만 그대로 부르면 젊은 세대에게 접근하기 어렵다. 저 개인적으로는 찬송가의 기본 내용과 멜로디와 화성은 바꾸지 않은 채 편곡을 해서 매주 한두 곡 이상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려 애쓰고 있다.

질문 : 트로트에 상당히 익숙한 회중이 찬송가의 가사를 트로트적인 형태로 찬양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정유성 목사) 찬양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다. 그 음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건전한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미국 교회가 컨츄리 음악을 예배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듯 음악적 시도에 있어서 트로트 같은 음악도 균형과 조화 안에서 예배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가사만 바꿔서 트로트의 형태로 부르는 것은 반대한다.

(윤임상 교수) 오늘 발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 중 하나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2천 여 년 동안음악은 계속 변했다. 그러나 아직도 현실을 거부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원칙은 제시해 주셨지만 방법적인 면은 자유의지에 맡기셨다. 그러나 오늘날 원칙은 제쳐두고 방법적인 면을 놓고 싸움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질문 : 국악과 교회음악과의 접목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기선 교수) 국악인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국악의 리듬, 방법, 창법이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전통 교회음악인들 가운데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굿거리장단 같은 경우 리듬이 자극적이기 때문에 복음적인 가사를 붙여도 교회음악으로 부적합하다고 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반응도 많다. 그런데 지금은 국악도 약간 형태를 변형해서 교회음악과 접목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교회가 새로운 음악장르나 악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음악의 무서운 점을 알고 어느 정도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크리스천 하드락이 많이 나왔던 때가 있다.

한 때 미국을 휩쓸다가 소멸되면서 워십송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 중의 하나는 어느 데시벨 이상 감당할 수 없게 큰 소리는 우리 이성을 마비시키고 충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 결과 워십송이라는 형태로 변하게 되었다. 이 예만 보더라도 어떤 음악 장르이든 악기이든 도를 넘지 않도록 균형이 필요하다.

질문 : 클래식 음악과 대중음악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사역자를 배출해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기선 교수) 10년 전부터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해왔다. 두 가지를 아우르기 위해서는 두 분야를 다 공부해야 한다. 한 사람이 두 분야를 다 다룰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 인력은 제한되어 있다. 우리 교회는 CCM 사역자에게 리더십이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대응하고 있다.

주디 한 기자

예배음악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W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찰리 정(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usajyk@gmail.com

국제기아대책 미주한인본부(KAFHI) LA 사무소 오픈감사예배
아래와 같이 행사를 갖고자 하오니 부디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 / 국제기아대책 미주한인본부(KAFHI) LA 사무소 오픈감사예배
• 일시 / 2014년 2월 20일 오후 5시
• 장소 / 10701 Holder St, Cypress, CA 90630 / YS HEALTH 2F 회의실
• 전화 / 703-473-4696
*예배후 저녁 만찬과 교제가 있습니다.
<초청인>
• 명예이사장 이원상 목사,
• 이사장 배현찬 목사,
• 부이사장 노진준, 이종관, 이순근, 최훈석,
• 회장 김형균 목사,
• 사무국장 정승호 목사

화환은 사절하며 당일선교헌금은 아프리카 우물파기 프로젝트를 후원합니다.

42세 젊은 목회자에게 듣는 목회 감각이란?

양성필 목사, "담임목회를 하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센스!"

엘에이 동부에 위치한 하나로커뮤니티교회 목회자는 젊다. 담임인 양성필 목사는 올해로 42세. 이렇게 젊은 목회자가 목회 감각을 이야기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오전 하나로커뮤니티교회 교육관에서 엘에이동부교역자협의회(회장 전병주 목사) 주최로 '목회 감각 BOOK CONCERT'가 열렸다.

엘에이 동부지역 목회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 교회)의 사회로 열린 이날 모임은 양성필 목사가 책에 담은 주제를 중심으로 대담을 나눴고,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양성필 목사는 "목회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라고 말문을 열고는, "'방법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본질만 충실하면 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라면서 "본질만큼 중요한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 한 가지 예로 양 목사는 "담임목사가 되고 나서 내가 교인에게 인사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음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인사였지만, 자신이 대통령처럼 딱딱하게 인사를 하는 것을 교인이 지적을 해줬고, 인사에 대해서 성도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본질과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인사를 하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병학 목사(주님의교회)는 "담임목회를 한지 1년 반인데, 제일 힘든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양성필 목사는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번은 에배를 드리는데 교회 음향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 담당자가 있었는데도, 급한 마음에 내가 섣불리 나서서 일을 처리하려 했다"면서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 안에 존재하는 '교회 시스템'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교회)는 "목회에서 디테일(detail)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영혼을 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섬세한 목회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나로커뮤니티교회 양성필 목사(왼쪽)와 선한청지기교회 송병주 목사(오른쪽).

그는 "차도 첫 시승을 할 때, 시트의 냄새, 시승을 했을 때 안락함과 같은 작은 부분이 그 차의 성공을 결정한다는 기사를 봤다"면서 "세상도 작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경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는 "디테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목회에는 정답이 없다. 나도 지금도 배우고 있다"고 말해 참석한 목회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양 목사는 "실제 목회에서 부딪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선배 목회자로부터 늘 배우려고 메모하는 훈련을 했다"면서 "늘 배우려고 했던 훈련이 목회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담임목회를 하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목회감각, 센스(sense)"라고 말하면서,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적, 교회적 원칙이 목회 현장에서 수학공식처럼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큰 교회의 부흥비결은 목회자의 설교, 리더십, 영성, 그리고 목회자의 '목회감각'이란 것이다.

양 목사는 "부교역자 시절에 한 성도의 장례를 치룬 얘기를 꺼내면서, 큰 교회다보니 담임목사가 일일히 하관예배를 다 할 수 없었다. 하관예배 집례는 부교역자가 한다고 말했으나, 그 성도분은 담임목사가 설교는 하지 못해도 하관예배에 참석하는 줄 알고 있었고, 결국 담임목사가 참석하지 못한 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그 성도분이 (담임목사를)오해하는 일이 생겼다"며 "성도에 관한 것은 담임목사가 다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양 목사는 "이민목회가 쉽지 않은 것 같다"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오히려 99마리의 양들에게 다가가야 함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인규 기자

성경의 룻과 나오미를 먹과 색의 동양화에 담았다

성경의 룻기가 그림이 되어 우리를 찾아온다. 동양화가인 유혜은 화백이 성경의 룻기를 그대로 붓으로 담아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룻기를 묵상하며 먹을 더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 몸부림치며 색을 더했다. 알고 보면 유 화백의 그림 큐티 전시회인 셈이라고나 할까?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 7년 전 교회에서 룻기를 공부하며 "바로 이거다"란 감동을 받았다. 시모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서로를 향한 끈끈한 의지, 남편 잃고 재산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순정남 보아스의 출현, 둘 간의 잔잔한 사랑, 나오미와 룻 가문의 극적인 회복, 이 모든 이야기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사랑 등 룻기가 담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의 메시지가 유 화백을 전율하게 했다.

더욱 성경을 탐독하고 룻기와 관련된 각종 성서학적 고증까지 마친 후, 작업에 돌입한 것이 3년 전이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던 중, 그의 아버지가

흉년으로 말라 버린 모압 땅에서 희망의 땅 베들레헴을 향해 가는 나오미와 룻.

돌아가시는 슬픔도 겪었다. 손자가 태어나는 기쁨도 겪었다. 아버지로 인한 슬픔에 잠겨있던 중, 그는 룻의 마음을 느꼈고 손자의 얼굴을 보면서 나오미의 마음을 느꼈다. "룻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렸던 모든 그림을 접고 "룻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림을 전부 다시 그렸다. 그래서 그런지, 유 화백이 그린 룻과 나오미에는 유 화백의 얼굴이 숨어있다.

유 화백은 "내 방식과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아를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를 배워간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는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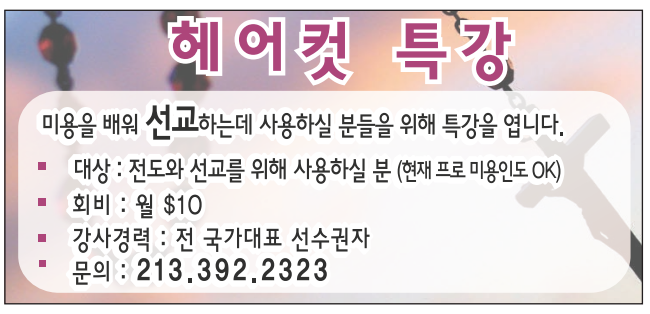
위치 : 미주복음방송 4층 세미나실

문의 : 히즈스토리 프로덕션 (310-404-5316) 김준형 기자

» 1면에 이어서 계속

게다가 모든 게이 남성이 이 유전자를 가진 것도 아니며, 이 유전자를 가졌더라도 게이가 될 확률이 40% 정도 밖에 안된다는 사실은 이 유전자와 동성애의 연관성에 심각한 결함을 보여 주고 있다. 과거에도 몇몇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Xq28 유전자가 동성애에 관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를 들면, 1993년 동성애자 학자인 딘 해머가 동성애 유전자인 Xq28이 존재한다고 발표해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러나 그가 신봉하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는 열성 형질인 동성애 유전자가 유전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거니와 그가 1995년 이를 보강하기 위해 재차 연구를 했을 때, Xq28 유전자와 동성애가 아무 관계도 없음이 확인되기도 했다.

한편, 마이클 베일리와 리차드 필라드도 1990년대 초에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 사람이 게이이면 다른 쌍둥이 형제도 게이일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조차 한 사람이 게이라고 해서 그 일란성 쌍둥이가 모두 게이이진 않았다. 오히려, 입양된 형제 간에 한 사람이 게이이면 또 다른 사람도 게이일 가능성이 일란성 쌍둥이가 모두 게이인 경우보다 확률상 높았다. 이는 동성애가 유전자 때문이라는 주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성장 배경이나 정신적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었다. 베일리 박사는 2003년 "The Man Who Would Be Queen"이란 책에서 트랜스젠더는 극단적 동성애를 경험한 사람이거나 여성처럼 옷 입고 싶어하는 생각에 성적으로 자극을 받은 사람이라고 분류해 성소수자 그룹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산 적도 있다. 반면, 2011년 인간의 성에 관한 수업 시간에 전기톱으로 성적 자극을 주는 장난감을 만드는 사람을 강사로 초대해 보수층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김준형 기자



빌리 그래함 목사.

빌리 그래함 부부의 생애에서

배울 수 있는 다섯 가지

겸손·진실·기도·말씀·믿음의 삶 새롭게 조명돼

빌리 그래함 목사와 아내인 故 루스 그래함 여사의 일생을 조명한 새로운 책이 미국에서 발간됐다.

'루스와 빌 그래함: 한 부부가 남긴 유산(Ruth and Bill Graham: The Legacy of a Couple)'은 스위스 CCC 디렉터로 30여년간 섬겨 온 한스페터 뉴스크(Hanspeter Nuesch)가 그래함 부부의 사역과 삶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해 온 결실로 내놓은 책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이 책에 대하여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그래함 부부에게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을 담고 있다"고 소개하며, 저자인 뉴스크가 제시한 그 다섯 가지의 가르침을 정리해 독자들에게 제공했다.

1. 겸손함-뉴스크는 그래함 부부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정말 겸손하고 언제나 주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렸다. 자신들을 높여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래함 목사는 '미국 대통령들의 목사'라고 불릴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고, 전 세계 주요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세상의 명예를 바라지 않았기에 한 번도 이러한 지도자들과의 만남에 대해 자랑한 적이 없었다"고 뉴스크는 말하면서, "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했다"는 것이다.

뉴스크는 그 일화를 하나 소개했다.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도 그래함 목사는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우리 가정부 아주머니와 대화 중이라서 좀 있다 다시 걸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다. 또한 그래함 부부의 집에는 유명 인사들과 찍은 사진이 하나도 걸려 있지 않다. 뉴스크는 "그들은 자신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뉴스크는 특별히 루스 여사가 남편인 그래함 목사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의 꿈을 내려놓고 그의 사역을 전적으로 돕는 자리를 지킨 것 역시 그녀의 겸손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2. 진실성-뉴스크는 두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또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진실성이라고 말했다. 뉴스크는 "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강단 위에서보다 집에 있을 때 더 진실했던 사람들이었다"며, "이는 그들의 인격이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말했다. 뉴스크는 그래함 목사가 "언제나 자기자신"이었다며, 그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으면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래함 목사는 '삶의 끝에서 주님께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잘하였도다, 선한 종이여"라고 답하곤 했다. 뉴스크는 그들의 겸손함과 진실한 인격은 그러한 답에 이어지곤 했던 말 한마디에서 드러난다고 소개했다. "그렇지만 내가 그런 말을 주님께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3. 끊임없는 기도-뉴스크는 그래함 부부가 집에서 보낸 일상적인 생활에 대해서도 책에서 밝히고 있다. 그 중 인상적인 것은 두 부부가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기도와 함께 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뉴스크는 "매일 저녁이면 그들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다양한 주제들에 관해서 기도했으며, 특히 항상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곤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뉴스크는 "루스 여사는 하루를 보내면 한 시도 빠짐없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소망했다"며, "그녀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연습하는 것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루스 여사의 기도의 삶에 대해 뉴스크는 "기도는 그녀가 섬겨야 했던 많은 사람들을 늘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했다. 그녀는 주님께 가까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에도 가까이 있었다"고 전했다.

4. 성경에 대한 사랑과 헌신-"두 사람을 특징지으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들 수 있을 것이다"고 뉴스크는 말했다. 그는 "그들의 삶에서 성경에 대한 사랑은 매우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루스 여사가 가족들 안에서 '신학자'의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집에 머무르면서도 성경 번역에 계속해서 헌신했고, 가정 내에서의 성경 공부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또한 매일 아침 그래함 목사와 루스 여사는 잠언과 시편을 묵상했다고 뉴스크는 전했다.

5. 흔들림 없는 믿음-빌리 그래함 목사는 '젊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조언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성구를 외우십시오. 그리고 또한 언제나 주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답하곤 했다. 뉴스크는 그래함 목사가 강조한 '언제나 흔들림 없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 부부의 삶에 많은 문제가 닥쳤을 때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함 목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에 언제나 헌신했다며, 이는 주님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손현정 기자

동성결혼 불법이지만 입양으로 가정 형성은 가능 판결

지난 월요일 아이다호 주의 대법원이 레즈비언 커플의 입양을 허가했다. 아이다호는 헌법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보수적인 주이면서 여전히 소도미법(Sodomy law)을 명시해 놓고 있다. 동성간 성관계를 금지하는 소도미법은 2003년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폐기되었지만 아이다호는 여전히 이 법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

아이다호는 과거부터 개인의 입양에 특별한 제한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이라면 누구나 미성년자를 입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주에서 결혼한 후, 아이다호로 이주한 동성 커플들의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형편에서 레즈비언 커플의 입양은 큰 논란이 됐다. 이번에 승소한 이 여성은 자신의 동성 커플의 자녀를 입양하고자 한 것이다. 치안판사에게 이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그는 항소했으며 결국 승소했다. 문제는 이 판결로 인해, 동성 커플 관계에 있는 두 여성은 결혼한 부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2세, 15세 두 소년에 대한 공동 양육권을 가진, 사실상의 법적 양육자가 되어 가정이 형성된 것이다. 이런 결과는 동성결혼 반대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아이다호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성적 지향성이 입양에 관한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아이다호의 주법이 명시한 "성인이라면 누구라도 18세 이하의 미성년을 입양할 수 있다"는 조항은 "결혼한 성인"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는 곧 결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성 커플도 입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 것이다.

김영신 기자

미국으로 간 '하나님 없는 교회' 3개월만에 2배 성장

영국에서 시작된 '하나님 없는 교회'가 미국에 진출한 지 3개월만에 2배 규모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테네시 주 내슈빌에는 지난 해 11월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일요총회(The Sunday Assembly)'의 '하나님 없는 교회'가 들어섰다.

'일요총회'는 기독교 교단의 이름 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천국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의 단체다. 이 단체는 기독교 교회 대신 '하나님 없는 교회'를 세우고 있다. 작년 초 런던에 첫 회당을 세운 데 이어 8개월여 만에 영국 전역 20개 도시에 지역 회당을 개척한 이들은 북미와 호주로 그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그들의 '해외사역'의 결실이라 할 수 있는 내슈빌 '하나님 없는 교회'는 세워진 지 3개월 만에 인원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예배 횟수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닌 두 번으로 확대하게 됐다.

일요총회의 창립자인 영국의 무신론자 코미디언 샌더슨 존스는 테네시 주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겨우 3개월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넘쳐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두 번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님 없는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주일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강연을 듣고 노래를 부르고 삶의 경이로움을 찬미한다. 존스는 앞서 CNN 등 외신들과의 인터뷰에서 '하나님 없는 교회'를 앞으로 10년 안에 전 세계에 1천 개 이상 세우겠다는 계획을 전하기도 했다.

'하나님 없는 교회' 모임 현장.

일요총회의 소속 회원들은 "기독교에서 미션 스쿨을 세우는 것과 흡사하게 자신들의 단체의 사상에 따라 교육하는 무료 학교를 세울 계획도 있다. 내슈빌 회당에서는 이미 데이케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슷한 서비스를 뉴욕과 샌디애고 등 다른 도시들의 회당에서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존스는 전했다.

한편, 종교 전문가들은 일요총회 같은 단체의 등장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본질보다는 종교적 양식에 흥미를 느끼는 데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손현정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H.R.3590 Religious Exemption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CMM은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단체입니다.
2014년 1월부터 미국 국민과 합법적인 거주자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건강보험이나 'Health Care Sharing Ministry'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독의료상조회(Christian Mutual Med-Aid)는 오바마케어 법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전국에 4개 뿐인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오바마케어 크리스천 벌금면제 플랜) 중 하나이며 유일한 한인 단체입니다.

CMM 플랜의 특징 및 장점
▶ 성경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플랜입니다.
▶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크리스천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한국(선교지)에서 사용한 의료비도 지원합니다.
▶ 모든 의사나 병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입과 신분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용 \ 프로그램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의료비 혜택 내용	예방검진 치료를 위한 검사비 수술 및 입원비	치료를 위한 검사비 수술 및 입원비	수술 및 입원비	수술 및 입원비
1 unit (1인)	$ 175	$ 135	$ 80	$ 40
2 units (2인)	$ 325	$ 260	$ 160	$ 80
3 units (3인 이상)	$ 425	$ 385	$ 240	$ 120
본인부담금 (1인 기준)	$ 500 / Year	$ 500 / Incident	$ 1,000 / Incident	$ 5,000 / Incident
질병당 의료비지원한도 (브라더스키퍼 가입)	unlimited	unlimited	질병당 최고 $1,000,000	질병당 최고 $1,000,000

Established 1996 기독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전화 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전국적으로 20만 크리스천 가정과 단체는 건강보험대신 의료비나눔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CMM은 건강보험회사가 아니며, H.R.3590 Religious Exemption에 의한 비영리 Health Care Sharing Ministry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말씀

디모데후서 3:10-17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 그것의 가장 핵심은 죽어서 천국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천국이 있느냐, 누가 가봤느냐"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자신이 아직도 천국에 대해서 믿어지지 아니하는 어떤 의심 같은 회의가 있다면 그 인생은 아직도 성령에 이끌리는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 사도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심령들에게 권세와 능력으로 깨닫게 하시고, 체험도 주시고 감동하시어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듭나게 되고, 이젠 영적인 내세 소망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꾸어 주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육신에 어떤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재산을 빼앗기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 고문을 당하고 죽인다고 총칼로 위협을 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붙들고 가꾸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지도록 우리를 사로잡고 감동감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들을 때는 그 말씀에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서 아멘은 부담 없이 했으나 돌아가서 세상살이, 자기 생활에 접어들면 금방 그 말씀은 간곳이 없고, 육신이 현실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불의와 죄악에 휩쓸리고 타협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온갖 죄악을 일삼기도 합니다.

1.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약 4만 8천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5만 2천개쯤 있었는데 그동안에 약 4천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교회라면 절대로 문을 닫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목적을 위하여 사람의 방법으로 잘못 시작 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할때 루스드라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고, 걸어 본적이 없는 나면서 앉은뱅이된 자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신세를 비관하면서 불구된 앉은뱅이로 인하여 자기 인생은 비참하게 됐다고 항상 불만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복음의 비밀인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몸은 불구가 돼서 앉은뱅이지만 영혼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얻겠다는 기대감이 자꾸만 부풀어 오를 때 설교를 하던 사도바울이 영감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보였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중단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손짓하면서 "네 발로 일어서서 걸으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다리가 펴지면서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거기에 설교 듣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도바울의 설교를 비방하고 대적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죽이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깡패들을 사서 동원시켜 해치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서 도망을 가야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도 외국 교회가서 부흥회 해주고 그 교회가 성령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바로 서게 되면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뜨겁고 목자와 양떼가, 양떼와 양떼가 새 힘을 얻고 일어서서 결속된 모습으로 다시 새 출발 하는 부흥의 추세,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쓰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부자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 행패와 고통을 당하고 죽인다는 위협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버릴 수 없는 것은 천국 못가면 지옥에 떨어져야하니까, 지옥에 가면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영원히 시달리는 고통을 알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야하겠기 때문입니다.

믿음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적인 타락한 이성의 결단으로 예수나 믿어보자는 것과,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집중적인 역사를 하셔서 그 인간의 의지를 성령이 꺾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성령이 집중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안믿어 안믿어 하다가 성령께 점령당하고 사로잡히고 나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한 깨우침이 '아! 이것이 진리구나'하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2.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물위로 걸어 오셨다는 것, 사람의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내세의 소망을 목적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생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진 속에 들어간 입장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 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하신 말씀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고나면 세상의 마귀앞잡이들이 너희를 영적으로 훼방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면서 원수로 취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마귀에게 속하였다면 마귀가 자기에게 속한 것을 사랑 할 것이겠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서 예수님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된고로 세상의 마귀와 그 앞잡이들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속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 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기대를 가졌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 살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여 살려고 애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목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처럼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3. 본문으로 돌아가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11절을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게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예수님 안에서 더 온전한 믿음, 성령이 충만하고, 순수한 영적 체질 신앙으로 믿음 지켜 살기를 힘쓰는 사람일수록 세상으로부터 더 큰 환난과 대적, 훼방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곧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남을 속이기도하면서 자기도 속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14절 말씀처럼 너는 진리를 배우고 확신한 일게 거하라고 하십니다. 확신한 일이란 헬라어로 '에피스토테스'로 믿어지는 믿음의 생활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이단이 어떤 교리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도 끄덕도 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아주 확고부동해서 절대로 동요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믿음을 교리적인 말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증거해 보일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여기서 '에피스토테스'라는 말의 뜻은 네가 믿어지는 대로 네 믿음의 진실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15~16절에서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시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록하게 하셨느냐 하면, 죄인들이 영적인 교훈을 받아 진리를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회개해서 바른 사람, 신자, 성도가 되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온전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으로 자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지금도 교회에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미국 신문 설교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기독일보	5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4 미주기독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쉽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org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요.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박사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타베이스 구축
- IRS,FTB,SBOE,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ITC)
- I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쇼설연금,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토요일10 am-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담임목사 청빙

미국장로교단(pcusa) 소속으로 미국인회중, 라티노회중과 함께 사역하는 파사데나 장로교회는 다음 세대를 지향하며 다문화목회에 소명이 있는 한인회중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지원자격〉

- 다문화 사역을 이해하고 비전을 가진 분
- 다음 세대를 지향하는 목회자
- 한국어와 영어로 설교가 가능한 분
- 3년 이상 목회 경험자(부목사 경력 포함)
- 정규 신학대학원 (M. Div. 이상) 졸업한 분
- 미국장로교단(PCUSA)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목사가 되기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 이력서(한글,영문)
- 자기 소개서(한글,영문)
- 최근 설교파일(음성 혹은 동영상) 2개이상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http://www.weppc.net에서 다운 받으십시요. 등록과 접수 절차도 동일한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용량이 큰 설교 파일이라면 Hightail 등의 대용량 파일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보내주십시요

〈제출 기간〉 2014년 2월 28일(금)까지
〈제 출 처〉 weppcsearch@gmail.com

파사데나 장로교회 청빙위원회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열등감과 피해의식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열등감과 피해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이고, 피해의식은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피해자의 마음입니다.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은 긍정적인 힘으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부정적인 힘으로 작용하기에 반드시 치유되어야 합니다.

만약 치유되지 못하면 늘 남과 비교하면서 경쟁심과 시기심의 노예로 살게 되고 더 나아가 누구 때문에 어떤 일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는 피해의식 속에서 가장 어리석은 삶의 태도인 '남의 탓'을 하며, 삶을 불행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큰 사람일수록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크게 생각해서 남이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를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피해의식, 자격지심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학벌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출신이 다르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한테 늘 이렇게 잘못 대우하니까 잘 안 되는 거잖아! 나만 늘 손해를 보고 있잖아!'

열등감과 피해의식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후부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오히려 해결하지 못할 죄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뒤에 숨는 열등감이 생기게 되었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아담은 하와 탓, 하와는 뱀 탓을 하며 '남의 탓'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손으로 태어난 가인은 자신의 제사는 열납되지 않았다는 열등감 속에서 제사가 열납된 동생 아벨과 비교하면서 분노하였고, 결국 아벨 탓을 하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이용하여 분노와 미움, 좌절과 절망의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며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구세주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여관에 빈방이 없어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천민의 마을 나사렛에서 당시 천한 직업인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기와 같은 당시 죄인 취급 받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고, 33살 젊은 나이에 가장 극악한 죄인의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후 가장 치욕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어디에도 위대하고 흠모할만한 모습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구세주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어떤 열등감도 이길 수 있습니다. 피해의식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비참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확실하게 붙들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미칠 듯한 경쟁과 상대적 박탈감보다도 더 큰 십자가의 능력으로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샬롬!

태양의 도시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지난 월요일 초에는 총회 관련 일로 동부에 갈 일이 있어 아침 일찍 존웨인 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다. 출발하기 전 동부에 계신 목사님과 연락을 해 보니 눈이 좀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최근 동부에 강추위와 눈보라가 잦아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일단 비행기를 탔다. 그런 후 마침 비행기 안에서 동부 쪽의 날씨 정보를 보았는데 기상예보를 하시는 분이 두꺼운 눈코트를 입고 모자를 뒤집어 쓴채 눈이 계속 와서 쌓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 번 주 안에 미 북동부 지역에 세 번의 눈폭풍이 더 예보돼 있다는 것이었다.

조금씩 불안해졌다. 눈이 이렇게 많이 오면 공항에 마중나오실 분은 제대로 올 수 있을지 또 총회 일로 여러 사람을 만나야 하는 데 다닐 수는 있겠는지 염려가 되었고 교회 사역 일정도 꽉 잡혀있어서 정확히 일을 마치고 속히 돌아와야 하는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염려하는 가운데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콜로라도 덴버에 내렸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모니터에서 동부로 갈 비행기의 일정을 살펴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동부로 갈 우리 비행기가 눈으로 캔슬되었다는 것이었다. 우리 비행기뿐만 아니라 그 쪽으로 가는 비행기들이 줄줄이 출발이 지연되거나 캔슬되고 있는 중이었다. 동부에 연락을 하니 다른 공항으로라도 가능하면 꼭 오라고 하셨지만 그러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날씨가 심상치 않았다.

그래서 동부의 일을 다른 분에게 맡기고 부득이한 일은 전화로 의논하기로 하고 바로 그 길로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찾아보았는데 다행히 두어 시간 후 오렌지카운티로 돌아오는 비행기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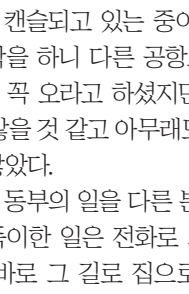
해야 할 일이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날씨 걱정 없는 집으로 가는 길이라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오는 길에 옆에 탄 미국 부부는 아들을 데려다 주러 콜로라도에 다녀가는 길인데 5일 동안 내리 눈이 와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좋은 곳도 많지만 오렌지카운티가 단연 최고란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정말 좋은 곳에 사는구나 싶었다. 오렌지카운티공항에 도착하니 푸른 하늘 환한 태양에 외투가 필요없는 온화한 날씨가 친숙하게 느껴진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나를 마중해 주기로 했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는데 눈이 와서 사방이 난리고 택시 기사조차도 움직이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휴!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돌아오기로 예정되었던 수요일에는 다시 전화가 와 밤새 눈이 쌓여 꼼짝도 못하고 눈치울 걱정이 태산같단다. 필라델피아에 사시는 총회서기 목사님은 하루가 넘게 정전이 되어 추위에 불도 없이 지내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덴버 쯤에서 돌아오기를 너무 잘했던 것이다. 오렌지카운티에 살면서 가끔은 겨울을 그리워 한 적이 없지 않았다. 흰눈이 보고 싶고 코끝이 쨍하는 겨울 추위가 그립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호사한 생각일랑 접어 버리기로 했다. 사시사철 꽃이 만발하고 언제라도 푸른 바다를 볼 수 있고 한 겨울에도 눈부신 태양이 빛나는 이 곳 오렌지카운티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새삼 느꼈다. 우리를 푸른 태양의 도시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자.

외계인 신드롬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외계인 신드롬"이란 사람들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수퍼파워를 지닌, 외계인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을 전제로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ET", "Men In Black(맨 인 블랙)", "V(브이)" 등이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킨 현상을 두고 생겨난 말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힘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부의 도움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는 주제는 수퍼맨이나, 스파이더맨, 배트맨 같은 영화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 역시 같은 주제인 듯합니다.

사람과 똑같이 생긴, 아니 아주 잘생긴 '도민준'이라는 외계인이 지구에서 400여 년을 살면서, 여전히 20대처럼 젊음을 유지하면서 순간이동을 하고, 위기 절명의 순간에 시간을 순간정지시키고, 초능을 발휘하여 위기에 처한 여주인공을 척척 구해주는 수퍼맨과 같은 외계인입니다.

그런 초능의 외계인이 지구 여인을 사랑하면서, 인간의 타액과 접촉되면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키스를 하고 앓아 눕는 "별에서 온 그대"의 장면에서 모든 여성이 뒤집어 졌다고 하니, 정말 감동에 목말라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모두에게 메시아를 향한 목마름이 있다는 한 예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기상천외하게 생긴 ET 같은 외계인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으신 아기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도민준'처럼 잘 생기지도 않고, 오히려 흠모할 것이 없는 평범남(?)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예수님은 외계 정도가 아닌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었습니다. 바다 폭풍을 말씀 한 마디로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수퍼맨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죽을 줄 알면서도 우리에게 찾아 오셨습니다. 앓아누울 줄 알고 하는 외계인의 키스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는 것이 었습니다.

사랑을 해 본 사람은 압니다. 이런 사랑, 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심은 우리 냉가슴에 열병을 일으키는 영원한 신드롬입니다.

세계 최초! 최대!

닥터-니온스

초강력 음이온 매트!

매초당 850만개 영구적 음이온 생산

신비의 음이온 힐링 매트

MIRACLE !! 확실한 효과!

고국방문 최고의선물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 선물

신비의 초강력 Dr-Nionz 을 사용하신 분들의 사례들을 모았습니다

★혈액순환 만성피로가 개선되며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불면증 쾌적한 숙면과 머리가 개운합니다

★수족냉증 손발 저림 과 통증완화 손과 발이 따뜻해집니다

★전립선 화장실 횟수가 줄어들며 효과를 보십니다

★중풍마비 놀랍도록 빠른 효과를 봅니다

★타박상 통증완화와 치유가 빠릅니다

★엘레르기 빠른 효과로 콧물,눈물, 재채기가 사라집니다

★아토피 가려움과 진물이 사라지며 엄청 빠른 효과를 봅니다

★탈모증 놀라운 효과를 보십니다

★천식 호흡 하기가 아주 편해집니다

★쥐나는 다리 고통에서의 해방 ! 다리 쥐가 사라집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통증완화와 빠른 회복

Dr-Nionz 무독성 100% 메디컬용 실리콘 음이온 매트입니다

초강력 Dr-Nionz 의 신비롭고 놀라운 빠른 효과를 경험하십시오!

단 한번의 구입으로 50년을 건강히 사용하십시오

100% MONEY BACK GUARANTEE!

Dr-Nionz 의 탁월한 효과를 보신 고객께서는 선물용으로 3-4 차례 재구매를 하시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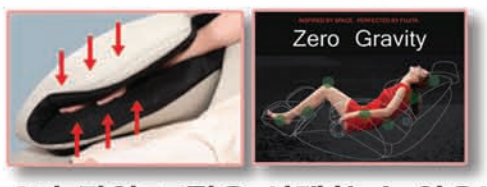
Professional KN9003 FUJITA 만의 강력한 특성!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작됨

전자파 없는 원적외선 온열시스템

혈액순환과 피로 회복에 최고!

양 팔과 양 발을 동시에 지압



3단 강약 조절을 선택할 수 있음!

머리 뒷골 및 머리 안마를 시원하게 함

세계 유일의 머리 안마 시스템!

전문 타이 스트레칭!

후지타만의 완벽한 기능

허리 디스크, 좌골 신경통 교정에 최고!

에어 전신 스윙 안마

세계 유일한 발바닥 롤러 마시지 시스템

후지타만의 발바닥 롤러 안마

5 year WARRANTY

SALE

풀옵션! 머리부터 발끝까지

$4,200 +Tax

Reg. ~~$6,499.00~~

+Tax
$175/월 2년 무이자

Professional KN9003 은 일반 가정용 마사지 체어가 아닙니다.
전문가로부터 전신 안마를 받으실 분을 위한 특별한
전문 마사지 체어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를 경험하세요

스마트 월드
건강용품 전문점

로데오 몰안

대표전화: 323-454-7872

833 S Western Ave Suite 22
Los Angeles, CA 90005
www.Gosmartworld.com

“우리 곁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영화

영화 ‘하나님의 아들’(Son of God), ‘더 바이블’의 감동 잇다

예수의 첫 등장 장면. 예수는 그를 제자로 삼기 위해 먼저 그의 도움을 청한다.

예수를 연기한 디오고 모르가도는 십자가형이 매우 감당하기 힘든 형벌이었음을 사실적으로 표현한다.

최후의 만찬. 예수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며 자신이 받는 고난에 담긴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친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과 예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낭독하는 장면을 교차 편집했다.

마리아를 연기한 로마 다우니는 자신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원자로 온 예수의 고난을 바라보는 복합적인 심정을 표현했디.

영화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많았으며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고 묘사한다.

영화 “하나님의 아들(Son of God)”이 2월 28일 20세기 폭스사를 통해 미전역 3000개 극장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 영화의 제작을 맡은 로마 다우니와 마크 버넷 부부는 지난해 3월 미국 케이블 채널 히스토리를 통해 방영돼 화제를 모았던 ‘더 바이블(The Bible)’의 제작자이기도 하다. 천지창조로부터 사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내용을 10부로 제작해 방영했던 ‘더 바이블’은 매회 1000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시청하는 기록을 남겼다. 이 영화의 감독인 크리스토퍼 스펜서와 예수 역을 맡은 포르투갈 출신의 배우 디오고 모가도(Diogo Morgado) 역시 ‘더 바이블’에서 감독과 배우로 활약한 바 있다.

미주 한인 커뮤니티의 봉사단체인 한인기독교개발협회(KCCD)의 협력으로 10일 오전 10시 30분 LA CGV에서 LA 지역 한인 목회자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시사회가 열렸다. 자리를 가득 매운 관객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2시간 30분으로 압축된 예수님의 발자취에 눈과 귀를 모았다.

영화의 첫 장면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모두 순교를 당한 뒤, 밧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의 모습이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내레이션으로 깔리며 아담,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윗 등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빠른 화면전환으로 보여주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어서 예수 탄생(nativity) 장면이 등장한다. “유대의 왕으로 오신 자”라는 동방박사의 말에 마리아의 얼굴에는 기쁨과 경이감이 스민다.

이어서 로마의 식민통치 아래 혼란스러운 유대사회의 모습, 극악무도한 유대총독 빌라도의 모습을 비추며 로마와 유대의 첨예화된 갈등이 부각된다. 카메라는 먼저 수십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황량한 벌판을 먼저 영상화하며 로마의 폭정 아래 십자가형으로 처형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어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그의 잔악함으로 인해 한 가족이 비극에 처하게 된다. 로마 군사로 인해 자식을 잃고도 어머니가 아무 항의도 하지 못한 채 울부짖는 모습은 로마가 상징하는 세상적인 권력과 힘 앞에 무력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 상황, 죄의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종 되었듯, 예수가 오시기까지 인간은 죄의 그늘 아래 신음하고 있었다. 영화는 이 상황을 전제한 후 갈릴리로 배경을 옮긴다. 갈릴리 광야와 호수를 비춘 후 예수가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이어진다. 예수 배역을 맡은 디오고 모가도(Diogo Morgado)는 자애롭고 인자한 표정으로 예수를 연기한다. 그는 친근하고 다정다감하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른다. 그것은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물을 달라”하시는 장면처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일 4:19),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요15:16), 즉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아왔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 그가 먼저 베드로에게 도움을 청한다.

예수의 첫 등장 장면. 예수는 그를 제자로 삼기 위해 먼저 그의 도움을 청한다. 영화는 이 장면을 목가적이고 서정적으로 표현해 베드로와 예수 사이에 흐르던 따뜻한 정서를 전달한다.

이후 영화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의 사역을 영상에 담는다. 회당에서 천국비유를 가르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마태를 부르시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다. 물위를 걸으시고,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다. 당시의 시대상을 꼼꼼하게 고증하듯 재현해 놓은 배경과 함께 빌라도로 대표되는 로마 권력, 로마와 결탁해 기득권을 누리던 대제사장과 종교지도자들, 예수 공동체의 갈등 관계에 초점이 맞춰진다.

예수와 서기관 및 종교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가 그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하자 서기관이 이를 신성모독이라 비방하며 군중을 선동하려 한다.

세관에서 자기 백성들을 착취해 로마에 세를 바치던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에 이르러, 유대종교지도자들과 예수공동체 사이의 갈등, 로마의 권력을 향한 유대인의 적대감이 표현된다. 죄인을 향해 손길을 내미시는 예수의 새 법, 용서와 사랑의 법은 유대종교자들의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고 있던 율법을 위협하는, 달갑지 않은 것으로 그려진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 예수의 새 가르침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과 예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낭독하는 장면을 교차 편집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연상시키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 그의 위선과 거짓을 폭로한다. 이와 유사한 갈등관계를 보이는 장면은 바리새인이 예수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세금을 누구에게 바쳐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다.

» 9면에 계속

초기 이민자 봉사센터

미국 생활에 어렵고 답답한 것들이 있습니까?
한미 법률센터(초기 이민자 봉사센터)에서
전문 변호사 및 법무사, 세무사, 유학 전문가가 교민들을 위해
횟수에 제한없이 무료 상담을 해드리니 부담없이 이용바랍니다.

- 유학생(ESL 포함)전학 및 체류신분 변경
- 유학생의 학교생활 고민 상담(어려운점 및 문제점)
- 영주권 신청, F-1(학생), E-2(소액투자), R-1(종교)및 종교이민
- 아파트 분쟁
- 소액재판
- 민사소송
- 이혼
- 법인 설립
- 재정 보증
- TAX & Accounting (세금 절약 방법 안내)

이민국 서류 거절시 수수료 전액을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www.migukguide.com
migukguide@gmail.com

문의:213)272-7498

1300 W Olympic Blvd. #202 Los Angeles, CA 90015 (Olympic + Union에서 동쪽으로 4블럭)

‘Son of God’

2월 10일 LA CGV에서 시사회 열려

28일 美 전역 3000개 극장서 개봉

» 8면에 이어서

여기서는 유대종교지도자와 예수의 갈등뿐 아니라 바라바로 대표되는 정치적 열광주의자와 예수 사이의 대립이 가시화된다. 또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 “메시야”를 외치는 군중들의 함성과 흥분한 모습과 예수의 수심에 찬 얼굴을 대비하며, 예수님과 백성들 사이의 간극을 형상화한다.

이 갈등의 한복판에서 빌라도는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하는 인물로 설정된다. 카메라는 범죄자 심문이라도 하듯 매우 차분하면서도 치밀하게 그 뒤를 쫓는다. 그는 유대 총독으로 매우 막강한 권력을 지닌 자이지만 그 역시 그보다 더 큰 권력을 지닌 가이사 황제의 하수인이기에, 유월절에 소동이 일어날 경우 자신의 지위가 불안해 질 것을 염려한다. 카메라는 그의 얼굴을 여러 차례 클로즈업하며 그의 갈등과 번민 불안을 포착한다. 예수에 대해 아내 클라우디가 “죄 없는 자”라며 그에게 손을 대지 말기를 청하나 “이 자를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유대종교지도자들의 말에 그를 그들의 손에 넘겨준다.

갈등은 공동체 외부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유다와 예수, 다른 제자들과의 갈등을 보여주기 위해 미묘한 심리변화를 포착해낸다. 십자가형을 앞둔 예수의 얼굴에는 자애로움 대신 불안, 초조감, 혼돈이 감돌기 시작하고, 채찍형을 받는 장면에선 고통에 떨며 신음하는 모습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대제사장을 찾아간 유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혼돈이 망설임이 깃든다.

최후의 만찬. 예수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며 자신이 받는 고난에 담긴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친다. 이미 예수를 팔기로 결의한 유다는 매우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다 예수로부터 빵을 받은 후 그 자리를 뜬다. 부활 이후 베드로는 이 가르침을 기억하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고, 이후 부활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영화는 십자가형의 잔혹함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려고 작정이라도 한 듯 선혈이 낭자한, 채찍과 가시면류관에 찔리고 긁힌 상처투성이의 얼굴과 몸을 계속해서 보여준다. 예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다룬 영화나 다른 재현 매체를 접할 때 마다 이 잔인한 장면을 넣음으로써 거두게 되는 기독교적인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 그 육체적 고난에 대한 표현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예수의 수난에 담긴 의미가 더 깊이 전달되는 것일까? 혹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말한 카타르시스 즉 감정의 정화를 위한, 즉 미학적인 완성 혹은 상업적 성공을 위한 의도적인 배치일까? 그렇지만 잔인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영화가 갑자기 장르를 바꿔 초현실주의적이거나 상징적인 방식으로 이 고난을 표현한다면 분명 우스꽝스럽게 보일 것이다.

이 문제를 논하며 10년 전 개봉됐던, ‘그리스도의 수난(The Passion of the Christ)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두 영화 모두 예수의 생애에 관한, 할리우드에서 제작한 블록버스터 영화라는 공통분모를 지닌다. 멜 깁슨의 영화가 “그리스도의 수난을 매우 사실적으로 재현했다”는 평과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묘사에 집중한 나머지 더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를 놓쳤다”는 엇갈린 평가를 받듯, 크리스토퍼 스펜서의 이번 영화 역시 이러한 엇갈리는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멜 깁슨의 영화와 좀 더 비교를 한다면, ‘Son of God’의 메시지는 영화의 첫 장면에 반복해서 나온 “함께 하셨다”에 압축되어 있다. 영화는 첫 화면에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삽입하고 예수를 인자하고 따뜻한 이미지로 영상화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인간적이고도 따뜻한 예수”를 전달하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성경이 예수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바는 그것이 전부일까? 자애롭고 인자함과 사랑이 넘치며 따라서 아이들을 비롯해 많은 이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예수. 단순히 기득권을 쥔 자들로부터 모함과 시기를 받은 존재. 예수를 따르던 이들에겐 예수에 대한 어떤 거리낌도 없었을까? 우리가 바라는 예수의 모습만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영화 속 예수의 이미지는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의 모습보다 어딘가 두리뭉실해져 있다. (영화에서 성전정화 사건 등을 통해 예수의 다른 면이 표현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요11:24-25),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마10:38),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마20:22) 같은 날선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영화는 할리우드가 대중의 구미에 맞게 슈퍼히어로를 빚어내듯,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의 이미지 중에서 군중들이 바라는 사탕발림한 모습만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유월절 어린양을 먹는 규례에 의하면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출12:9) 했다. 예수의 삶과 말씀 중 자기가 받아들이기 쉽고, 자기 구미에 맞는 것만 취사선택해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일 수 없을 것이다.

기술적, 내용적인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영화를 본 후 이같은 의문이 드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다. 성경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사실적으로 재현해 예수공동체 및 그 시대의 공동체의 관계와 인과관계를 잘 묘사하고, 상처 받고 힘없는 억눌린 이들을 보듬고 그들과 함께 한 예수의 모습을 잘 드러내려 했다는 점, 공생애의 많은 일화들을 담으려 했다는 점 등 크리스천 영화로서 여러 훌륭한 면모마저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이 지닌 이면적 의미를 배제하고 이 영화를 볼 경우 예수의 죽음은 시대적 불운으로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한 한 의인의 죽음에 불과하다. 영화에 묘사된 예수처럼 자애롭고 인자한 모습을 띤 성자는 역사상 간혹 존재해 왔으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았던 시대의 희생양이다.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해석이 좀 더 추가되었다면, 십자가와 고난의 의미에 대해 예수, 제자들의 언급이 더해졌더라면, 어떤 상징적인 방식으로 십자가의 고난에 담긴 의미가 전달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십자가형을 받는 예수를 연기하는 디오고 모가도는 이사야 53장에 묘사된 고난의 종의 모습,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잠잠한” 모습을 훌륭하게 표현해낸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 이 수난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이 십자가 장면을 통해 전달하려 했던 복음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 ‘예수는 잘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라는 의문이 들었다. 십자가는 예수의 삶의 정점,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자 그리스도교 교리의 핵심이다. 시청각적 이미지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영화라는 장르의 특성상 십자가의 의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라는 형상화될 수 없는 가치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조우한다. 그 내시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고난의 종에 관한 예언을 읽지만 그 속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어떤 면에서 이 영화가 비기독교인들에게 구원의 도구로써 사용될 수 있다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러했듯,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그 깊은 질문을 던져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크리스천들에게는 예수가 사역했던 시대를 그려보고, 그 시대 공동체적 갈등을 이해하고, 십자가와 그 삶의 의미를 다시 새겨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줄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영화가 끝나고도 예수의 삶이라는 무거운 주제 앞에 관객들은 쉽게 입을 떼지 않았다. 환태평양 영화제(Pan Pacific Film Festival·이하 PPFF)의 켄 안 대표는 시사회 후 먹먹한 마음을 추스린 후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소감을 전했다. “10년 만에 좋은 예수 영화를 만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한인커뮤니티를 위해 특별히 한글자막까지 넣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21세기는 미디어의 시대라고 합니다. 좋은 크리스천 영화가 선교현장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 선교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후 미주 한인 커뮤니티의 대표적 봉사단체인 한인기독교개발협회(KCCD) 임혜빈 회장은 “한인 커뮤니티와 한인 교회에 이런 자리와 기회가 없었지만 앞으로 이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KCCD가 다리역할 할 것”이라며 “이 영화의 제작자인 마크 버넷이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특별히 한글 자막을 제작해 주었다”며 “한인 기독교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전했다. KCCD 박종대 이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영화가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디 한 기자

교회맞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Youth예배 오전 11:00
어린이부 오전 11:00 /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박헌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00 / 4부예배 오후 12: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 찬양예배 오후 3:30 /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A /T. (213) 383-2600 (213) 413-1600
임시예배처소 3119 W. 6th, LA , CA 90020 laopendoor.org

주일 오후 4시 / 새벽 오전 5:30 (월-토) / 저녁 오후 7:30 (화,목,금)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0:00 /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0:00 / 금요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7:45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30
EM예배 오전 11:30 /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11:00 / 성경공부 오후7:30 (화) 오전10:30 (수)
금요저녁예배 오후7:30 /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 2부 오전 6:30 (월-금) 오전 6:3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유초등부 오전 11:00 / 중고등부 오전 10:45
대학부 오후 1:00 / 성경공부 저녁 7:30(목) /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후 12:00 /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1:00 /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 찬양예배 오후 1: 45 / E.M.예배 주일오전 11:00
삼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7: 30
이 영 담임목사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927 Bonnie Brae Street Los Angeles CA 90006
T. 714) 319-2234

주일예배 오전 9:00 / EM예배 주일 오후 11:00 /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2:00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 목요찬양예배 :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399-7949 / www.smkc.us

서건오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 금요예배 오후 8:00
중고등부:주일 오전11:00 / 청년부: 주일 오후 1:30 / 새벽예배 화~토, 오전6:00
새로남교회
말씀과성령으로 주의뜻을 이루는교회
3407 W. 6th St103 L.A. CA 90020
T. 213) 384-0305 / www.gwcla.net

김성광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예배 오후 7:30
성재복음선교교회
온 성도가 성령과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에 거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15 LA, CA
T. 213) 327-9200, T. 213) 598-9932

박승부 장로

1기,2기,3기,4기 수료생 배출, 현재5기 수료생 양성 중
- 수기치료의료선교사 양성
- 약품이나 기구없이 손만으로 각종질병치료하는 의술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2836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1-7273/ (213) 605.2928

1부예배 오전 09:00 / 2부예배 오전 11:00 / EM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11:00 /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행 (정부 베네핏 전반)
음식 보조 푸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산부 메디칼

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 오후 1:30
영어예배 오전 10:00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0:00 / 3부예배 오전 11:30
김혜성 담임목사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김종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 2부예배 오전 11:00 /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예향선교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213)281-1196 E-mail. isaacdew@hotmail.com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임마누엘선교교회
초대교회의가정의모습,성경적코이노니아,만인제사장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0:30 /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3부예배 오후 1:00 /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대표 **김갑선** 목사
부설 : Naturo pathy Clinic(월~금)
진료문의 213) 505-7067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종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2333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젊은이 예배 오후 2:22
EM예배 오후 2:00 /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 교회
51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 (323)930-0011,(323)935-0011 / www.LAsarang.com

교회맞선교회

LA동부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박혜성 담임목사

남가주휄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45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예배 오후 7:30분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영어예배(EM) 오전 11:3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안병권 담임목사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986-9797 ganachurch.hompee.com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11:45
주일학교 오후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7:45
나눔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EM 1부 9:45/ 2부 11:45
중/고예배 오전 11:45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45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강영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7:00
금요기도회 오후8:00
성화장로교회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515-1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물통(通)하여 만사형통합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5부예배 오후 3:00(KM청년)
장애우예배 오전10:00
Toddler - Youth 오전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5:30a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
오전 11: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회예배 오후 12: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세리토스채플)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세리토스채플)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밸리채플)
목요영성집회 오후7:45 (다우니 채플)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밸리채플)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818) 363-5887 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 (휠로우쉽홀)
오후12:00 (본당)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후 6:30 (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미주 한인교회들 연합해 니카라과 부흥 불 붙였다

니카라과에서 펼쳐진 전도집회 현장.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목사)가 지난 2월 3일(월)부터 8일(토)까지 니카라과 수도인 마나구아의 띠피따파 지역에 소재한 소망선교센터(이창희, 이향자 선교사)에서 '제4차 니카라과 현지인 목회자 훈련'을 진행하고 '단기선교사역'을 펼쳤다.

GMA(Global Mission Alliance)와 연합으로 펼쳐진 이번 사역에는 미국 내 7개 교회와 헤븐리터치미니스트리(대표 손기철 장로)에서 총 63명의 목회자 및 성도들이 동참했으며 니카라과 전역에서 700여 명의 현지 목회자 부부가 참석했다.

'기도와 치유를 통한 교회부흥(역대하 7:14)'을 주제로 한 목회자 훈련에는 정인수 목사, 조지아크리스찬대학교 김창환 총장, 손기철 장로와 윤현숙 사모, 훼잇빌장로교회 김윤곤 목사, 클리블랜드장로교회 김성택 목사. 후로리다말씀교회 김용일 목사, 아리조나템피장로교회 윤정용 목사, 시카고 다솜교회 김종관 목사가 강사로 나서 10회에 걸친 강의와 분과 강의 및 치유집회를 인도했다.

이 자리에서 정인수 목사는 "하나님 나라가 니카라과에 새롭게 동터오고 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가 선점한다. 대부분 목회자들은 잠자는 거인이다. 자신의 리더십을 준비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질 때 미래 목회가 역동적으로 펼쳐진다. 부흥하는 교회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그 시작은 영적 리더십의 변혁이다. 위기를 통해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사역의 외적 성공보다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통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라"고 당부해 현지 목회자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다.

손기철 장로가 인도한 치유집회 또한 큰 성황을 이뤘다. 주최 측에 따르면 치유집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했으며, 휠체어를 타고 참석한 사모가 걷는 치유역사가 일어나기도 했다.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광장 전도집회에서 또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 목발을 짚는 자가 걷고, 임파선의 종양과 디스크, 마약 중독자가 치유됐다.

전도집회에는 중남미의 유명 복음성가 가수인 Sanidad Interna가 함께한 가운데 8천여 명이 넘는 현지인들이 참석했다.

63명의 단기선교팀은 띠삐따빠의 선교센터에서 500명의 Yunhap Christian Mission Academy 학생들을 VBS, 의료, 사진, 스포츠 사역으로 섬겼으며 700명의 목회자들에게 기도, 의료, 안경, 미용, 사진, 구제사역으로 사랑을 전했다.

또 Tierra Prometida 지역 예수소망교회, Los Trejos 지역 지방교회에서 각각 500명씩을 섬기기도 했다.

앤더슨 김 기자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사람들의 모임, 비전케어"

"비전케어와 함께 밝히는 빛" 콘서트에서 감동을 선사하는 소프라노 양제경 씨.

제3세계에서 무료 개안수술 캠프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국제실명구호단체 비전케어 미주법인(이사장 김용훈 목사)이 소프라노 양제경 씨를 초청해 2월 14일(금) 열린문장로교회에서 "비전케어와 함께 밝히는 빛" 콘서트를 열었다.

비전케어 미주법인 김진아 총무는 "지난 4년 동안 비전케어와 함께 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기 위해 이번 콘서트를 마련했다. 발렌타인데이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콘서트 취지를 설명했다.

서정적인 음색과 풍부한 음악성으로 해외 유수의 무대에서 각광받고 있는 소프라노 양제경 씨는 세계적인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호평을 받았으며, 세계적인 지휘자 크리스토프 에션바흐에게서는 "그녀는 완숙미 넘치는 음색과 함께 테크닉의 민첩함과 안정성, 표현의 서정성과 진정성으로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다"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김영미 교수에게 사사받은 양제경은 크리스토프 에션바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3시즌에 그가 지휘하는 워싱턴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NSO)와 "Mozart's Requiem"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으며, 현재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거주하며 유럽을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있다.

특별히, 이날 콘서트에는 양제경 씨의 스승인 마에스트로 루이스 살렘노 씨가 피아노 반주를 자청해 자리를 빛냈다.

양제경 씨는 모짜르트의 '알렐루야',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 '나를 울게 버려두오', '새타령', '강 건너 봄이 오듯',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중 '홀로 길을 걸을 때면', 요한스트라우스 오페레타 '박쥐' 중 '친애하는 후작님',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The Holy City' 등을 선사해 기립박수를 받았다. 장경진 사모는 'For All the World'라는 곡을 마임(Mime)으로 공연해 감동을 선사했다.

김용훈 목사는 "비전케어는 큰 하나님을 믿는 작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비전케어는 미소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미소를 찾아줌을 통해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우리는 비전케어 사역을 통해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도 떠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사람들이 되자"고 격려했다.

2010년 4월에 출범했던 비전케어 미주법인은 지난해 무료 개안수술 캠프에 안과의사 16명, 그 외 다른 과의 진료 의사 4명, 간호사 20명 등 총 108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개안수술 416명, 기타환자 1839명 등 총 4408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다.

비전케어 미주법인은 올해에도 멕시코, 모로코, 모리타니아, 과테말라, 키르키스탄 지역에서 무료 개안수술 캠프를 진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계획이며, 함께할 수 있는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문의 : 703-354-7060,
jkim@egtitle.com(총무 김진아)

조요한 기자

한국교회와 함께한 게리 바이어스 목사 은퇴해

바이어스 목사(왼쪽 끝), 정진오 목사(오른쪽 끝).

지난 1월 26일 미국 일리노이 벨빌에 위치한 시온루터교회에서는 40년 목회여정을 끝으로 은퇴하는 게리 바이어스(Gary Byers) 목사의 은퇴 예배가 열렸다. 1992년 미국 시온루터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부임한 바이어스 목사는 미국 내에서도 꽤 보수적인 루터교회(LCMS) 소속임에도 상당히 개혁적인 성향을 지닌 목회자였다.

그는 시온루터교회에 부임한 이후 정통 루터교 예배 의식에 열린 예배 형식을 도입함으로써, 다소 딱딱한 예배 의식을 개혁하고자 했다. 그의 이런 시도에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루터교 정통 예배 의식에 역동성을 불어넣음으로써 도리어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1994년 한인 교회를 받아들임으로써, 백인 중심의 배타적인 교회 이미지를 벗고, 다양한 계층과 인종을 끌어안는 교회가 되고자 노력했다. 그의 유별난 한국 사랑이야기는 지난해 12월 본지에 바이어스 목사의 기적 같은 한국 아이 입양과 한인 교회 사랑 이야기로 보도되어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바 있다.

이날 열린 은퇴예배에는 한인과 미국인들이 함께 연합으로 구성한 성가대가 "주 품에"를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부름으로 더욱 은혜로운 예배를 만들었다.

바이어스 목사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빌 1:3)를 본문으로 한 마지막 설교에서 "지난 목회 여정을 돌이켜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시온교회와 함께 한 모든 시간들 다 감사와 은혜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지금 시온교회 목회 사역에서 떠나지만, 이 시온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지금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보다 더 많이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해 많은 교우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이날 예배 후 열린 만찬에는 약 500여 명의 내외빈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어스 목사의 생애와 목회 여정, 그리고 가족 소개와 특별 찬양 등 다채로운 순서로 떠나는 바이어스 목사를 축복했다.

정진오 부목사는 감사 인사말에서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한인 교회를 끌어안고 함께해 준 바이어스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당신이 보여준 참된 목회자의 모습,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그 열정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답 인사말에서 바이어스 목사는 "내 목회 여정의 절반을 한인교회와 함께 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고 말했다.

박창민 기자

섬기는교회, 입당예배 드리고 제2의 도약 다짐

애틀랜타섬기는교회가 지난 16일 새성전 입당 감사예배를 드렸다.

애틀랜타 섬기는교회(담임 안선홍 목사) 새성전 입당 감사예배가 16일(주일) 오후 5시 드려졌다. 2009년 6월 로렌스빌 소재 미국교회에서 개척예배를 드린 섬기는교회는 같은 해 11월 둘루스로 이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오다 2012년 구 새하늘교회 건물을 구입해 또 다시 이전했다. 이후 계속되는 성장으로 새로운 예배장소를 물색하던 중 지난해 말 슈가로프 밀스 쇼핑몰 인근에 위치한 현 건물(구 한인침례교회)을 구입하게 됐고 리모델링을 거쳐 12월 1일부터 예배를 드려왔다.

이날 예배에서 안선홍 목사는 "기러기의 편대 비행에 대해 알 것이다. 이곳으로 이전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앞서 수고한 교회 리더들의 헌신과 이를 잘 따라온 성도들의 화답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두 렙돈을 그 생명과 같이 기뻐 받으셨다. 모든 성도들의 헌신은 마치 그와 같았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안 목사는 "건물 구입과정에서 교회 리더들은 교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은 절대 생각하지 않았고, 은행 측은 금액이 너무 낮다며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건물을 나눠 쓸 것을 제안한 리폼드신학교와의 만남으로 이전이 가능해 졌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 더 감사하다"고 이전 과정을 설명했다.

안성홍 목사는 또 "사실 이 건물로 오게 된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과테말라 선교지에 교회 봉헌을 먼저 할 수 있었던 일이다. 섬기는교회는 작년에도 예산의 24%를 전도와 구제, 선교에 사용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과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 둔 초점을 잃치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안선홍 목사는 "이제 섬기는교회는 두 번째 기러기 편대비행을 시작한다. 작년이 가시적 성전을 위한 비행이었다면 올해는 비가시적성전을 건축을 위한 비행이 될 것이다. 참된 교회는 성전이 아닌 거룩한 성도이다. 그리고 그 일은 내가 가장 앞장서야 할 일이다. 모두가 이 비행에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예배는 안선홍 목사의 은사로, 안선홍 목사의 결혼을 주례했던 박일철 목사가 말씀을 전해 의미를 더했으며 미주성결교회 증경총회장 류지화 목사, 이승남 전 한인회장, 리폼드신학교 박재식 총장, 미주성결교회 동남감찰회 감찰장 장석민 목사, 기독남성합창단, 쟌스크릭한인교회 최낙신 목사가 순서를 맡아 기쁨을 함께했다.

앤더슨 김 기자

아여모, 선라이즈 양로원 위로 공연

아름다운 여인들의 모임(회장 석은옥, 이하 아여모) 임원들이 2월 15일(토) 오전 11시 스프링필드 소재 선라이즈 양로원을 방문해 찬양과 미국 민요, 정성이 깃든 선물로 노인들을 위로했다.

석은옥 회장은 "궂은 날씨였지만 지난 4년간 두 달에 한 번씩 방문했던 곳이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기에 방문했다. 마침 전날이 발렌타인데이라서 회원들이 풍선으로 꽃, 잉꼬새, 강아지 등을 만들어 한분한분께 선물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날 공연은 강혜경 팀장의 사회, 석은옥 회장의 인사, 주기도문, 바디워십(김용숙), 플룻(에밀리), 솔로(강혜경), 크로마하프 솔로(박시내)와 듀엣(최순옥, 석은옥) 순으로 진행됐다.

조요한 기자

O.C./얼바인 지역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7037 orangethorpe Ave.,Buena Park CA 9062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7:2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00
영어장년부 오전 9:00/11: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EL:562-691-0691. FAX:562-691-0698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청년)예배 오후 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5:30
Youth 예배 오전10:30
EM예배 오후 2:30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새벽예배 오전 6:00 본당
수요기도 저녁 8:00 본당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허귀암 담임목사
노르워크 한인교회
영혼을구원하여 제자로세우는교회
13000 San Antonio Dr,Norwalk,CA90650
Tel: 562)802-4959 ,Cell: 714)308-7038
E-mail:usa8291@gmail.com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 (714)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가크리스천이다.내가 크리스천이다.하나님은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시30분
중.고등부 오후 3시
청년부 오후 3시
성경공부 (화) 오후 8시30분
금요철야예배 오후8시
한국학교 (토) 오전 10
방익수 담임목사
사랑의방주교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정복하여 공동체를 살리는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92620
T . (949)654-0191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살천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 (본당)
2부예배 오전 10:00 (본당)
3부예배 오전 12:30 (FC채플)
EM예배 오전 10:00 (FC채플)
오후 12:30 (본당)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본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cpc.org

김민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5
EM영어예배 오후 12:45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예 친 교 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오전6:00
열린예배 (수) 오후 7:30
성령집회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얼 바 인 침 례 교 회
5101 Walnut Ave., Irvine,CA92604
T. (949)857-9425 / F.(949)857-9242

최상준 담임목사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얼바인 한믿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김삼도 목사
곽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얼바인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949) 305-3951

주일예배 : 1부 오전 6:00
오후 7:30
매일 오전 6:00(화-금)
오후 7:30
(매월 S,D,F, Power minister)
지 샤론 담임목사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충만으로 균형잡힌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실제화, 생활화, 사명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인도받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1부예배 오전8:15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CA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찬양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묵상예배 오후 2:30
월요 선교학교 오후 7:30
화요 중보예배 오후 7:30
수요 예배 오후 7: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금요철야예배 오후 8:00
토요 EM예배 오후 7:30
목회 담당 앤드류 김 목사
선교 담당 안근성 목사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714-635-6402,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3부 : 오후 1:3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45(월~금)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670-6700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강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www. samcare.org
박세록 대표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세계 최초의 쾌거

미국 FDA에 의약품으로 인증 등록됨
일반 의약품 등록 번호(NDC No: 58912-2001)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 치료제 개발

기적의 약(Miracle Pharmacy)

미라팜-22

Mirapharm-22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예방 및 치료약,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약

Made in USA

90캡슐 / 한달 분 / 한 병

22세기형 최첨단 신약으로 탄생했습니다.

100% 천연 유기물질로 만들었으며
24년간의 연구와 임상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 14년간의 연구와 10년간의 임상 끝에 100% 천연 물질이면서 의약품으로 인증 받은 미라팜-22
- ◈ FDA에서 본 제품의 독성 및 기타 성분 분석 검사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미국 FDA에 의해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 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약 등록
- ◈ 친환경 천연유기물질을 생명공학 공법으로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면역 증강, 각종 질병 치료제
- ◈ 100% 천연유기물질 소재로 만들었기에 부작용의 염려가 없고 각종 난치병에도 많은 효험을 나타냄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월등히 뛰어나며 일반의약품(OTC Drug)으로 인증받은 첨단의약품

갑상선 말기암 환자의 최근 체험사례

복용후 5일 – 11/5/2013 복용후 25일 – 11/25/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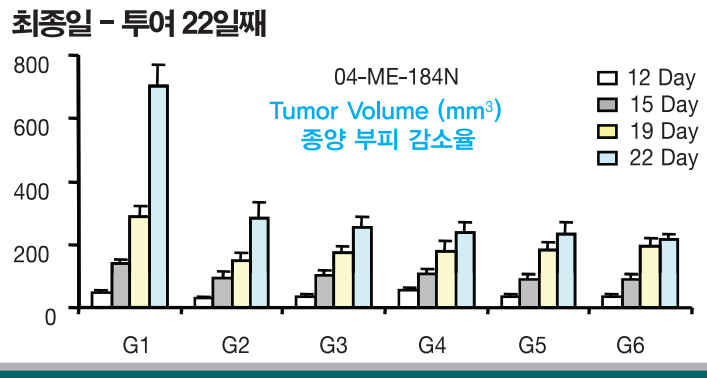
생후 5개월부터 28년된 아토피 환자의 치료 사례

복용후 99일

복용전

미라팜-22의 암 예방 및 치료제에 대한 전임상 테스트 확인 도표

최종일 – 투여 22일째



군 (mg/kg)	Control 무치료	Doxorubisin (2) 화학항암제	Mirapharm-22 (75) 미라팜-22	Mirapharm-22 (15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사전 예방처리
22일 째 (최종일)	704.6 ±67.2	285.6 ±50.6	251.9 ±36.3	235.3 ±34.6	232.1 ±38.5	214.2 ±20.5
22일째의 억제률 %	0	59.5	64.3	66.6	67.1	69.6
	G 1	G 2	G 3	G 4	G 5	G 6

키모테라피에 사용하는 화학요법 항암제보다 월등히 우수한 암 부위 감소율을 자랑하는 천연 치료제인 미라팜-22의 임상 결과에 대한 논문은 곧 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로데오겔러리아 아주관광 몰내)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제대로 된 종말론으로 이단 · 사이비 폐해 치료해야

이동영 교수 '몰트만 삼위일체론적 종말론' 소개

이동영 교수(왼쪽에서 두 번째)가 발제하고 있다.

한국개혁신학회가 15일 오전 신반포중앙교회에서 제107차 정기학술발표회를 진행한 가운데 이동영 교수가 발제하였다.

종말론은 한국교회가 잘 다루지 않는 민감한 주제로, 지금까지 교회가 외면하는 동안 이단·사이비의 전유물이 돼 거론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이 쉽지 않은 주제인 '종말론'을 다루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내용과 삼위일체론적 공간이해의 결합으로 해석했다.

웨신대 이동영 교수(조직신학)는 15일 신반포중앙교회(담임목사 김성봉)에서 열린 한국개혁신학회 제107차 정기 학술 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적 종말론과 그 구성을 위한 조건들'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독일 개혁교회 출신의 신학자 몰트만은 서방 신학 안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종말론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신 시키는 일에 결정적으로 공헌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동영 교수는 먼저 종말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리스도교는 전적으로 종말론적인 종교"라면서 그 이유에 대해 "예수에게 붙여진 그리스도(메시아) 호칭 자체가 유대 종교사적으로 볼 때 종말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가 기약 없이 연기되고, 로마제국의 혹독한 박해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리스도교가 로마제국의 제국 종교가 된 순간부터 종말론은 냉대와 무관심의 교리가 됐다. 서방 신학의 전통 속에서 교의학 말미의 마지막 항목으로 하찮게 취급돼 오늘날에 이르렀다"면서 종말론의 가치가 격하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몰트만은 전통적 종말론과 현대적 종말론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종말론의 특징을 첨예화하고 있다. 몰트만의 종말론 내용과 의도를 파악해 사이비 종말론의 폐해를 치료하고 교정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통적 종말론의 문제점에 대해 "종말론이 서방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도래 내지는 새 창조를 향한 희망의 교리로써 파악되지 못하고, 유대인의 망상으로써 일관되게 배척됐다"면서 "원래의 종말론의 체제 변혁적인 역동적 에너지는 교회 밖의 이단적인 분파주의자들에게 퇴행적으로 전이돼, 파괴적 묵시 사상과 결탁한 그들의 사악한 교리 속에서 그 생명력을 연명한 점"이라고 했다.

또 현대 종말론의 문제점은 "바이스와 슈바이처로 대변되는 '미래 종말론'과 바르트·알트하우스·불트만·부룬너' 등으로 대변되는 '실현된 종말론' 사이의 대립을 통해 촉발됐다"면서 양 '종말론' 사이의 대립은 보스·쿨만·예레미아스·퀌멜·E. 슈타우퍼 등에 의해서 "지금 이미 시작됐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음의 종말론'의 방식으로 중재됐다.

이동영 교수는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적 종말론의 구성 조건들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 종말론을 구성하기 위해 자연과학의 시간 개념인 직선적 양적 시간 개념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양적 시간은 과거로 전락해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작이 없는 시간의 순환 운동으로서의 '에온'의 시간만이 끝이 없는 시작으로 종말의 시간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둘째, 종말의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인 '프투룸'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 즉 '아드벤투스'라고 했다. 셋째, 삼위일체론적 관점에서 종말론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그것들과 더불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을 결합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종말론을 다시 고찰했다. 그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종말은 묵시적 표상과 더불어 너무나 빈번하게 세상의 심판과 파괴의 파멸과 멸절로써 이해됐다. 이러한 세상의 파국을 가르치는 묵시적 종말론은 필수적으로 내세를 지향하는 개인주의적 종말론을 수반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세상의 파멸과 더불어 자기 자신의 파멸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적 영광의 종말론'은 반 세계적이고 반역사적이며 영지주의적인 전제 군주적 일신론의 묵시 종말론을 비판하며 교정하는 일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종말론은 오늘날 만연해 있으며 사회적 물의까지 빚고 있다"고 했다.

또 "몰트만에 따르면 종말은 종국적으로 하나님 은총의 선물"이라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몰트만의 종말론적 유보의 태도는 세계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와 동일시하고 그것을 절대화시키려는 모든 정치신학적인 이데올로기의 공세에 대항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몰트만의 종말론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우선 몰트만의 종말론은 논리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몰트만은 이단 종파들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입각해 개진한 종말론의 폐해, 즉 피안적이고 반역사적이며 반사회적인 파괴적 폐해를 지적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도 전천년설의 입장에 기대어 자신의 종말론을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이동윤 기자

"인간 생명·안전 '최우선'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의무"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재난의 의미와 이에 대한 우리의 자세' 주제로 월례회

자연재해가 인간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지에 대한 신학적·성서적·윤리적·목회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한복협·회장 김명혁)는 '재난의 의미와 이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2월 월례 조찬기도회 및 발표회를 14일 오전 7시 서울영동교회(담임목사 정현구)에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자연재난과 윤리적 책임'이란 주제로 발표한 손봉호 교수(한복협 사회위원장·고신대 석좌교수·서울대 명예교수)는 "윤리적 책임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에만 물을 수 있다"며 "자연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현상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큰 해를 끼치더라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률에서는 자연재난을 어떤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에서 '하나님의 행위(Acts of God)'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연재난은 악한 자와 선한 자, 심지어 전혀 범죄할 가능성조차 없는 어린이들에게조차 큰 고통을 가하기 때문에 신상필벌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며 "1755년에 일어난 리스본의 지진에 약 5만 명이 사망하고 도시의 3/4이 폐허로 변하자 유럽 지성계에 큰 논란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손봉호 교수.

손 교수는 "프랑스의 계몽주의자 볼테르(Voltaire)는 캉디드(Candide)란 소설을 통해 무죄한 어린이까지 죽게 한 하나님의 정의와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von Leibniz)의 변신론(theodicy)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손봉호 교수는 "욥기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자연재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을 논의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무시한 잘못이다"며 "동시에 자연재난이 피해자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라고 단언하는 것도 근거가 없다. 그런 재난의 의미는 인간의 인지능력 바깥에 있다"고 말했다.

관점을 바꿔 손 교수는 "자연재난의 피해는 인간의 악에 의한 피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다"며 "최근의 역사에서 가장 큰 자연재난으로 알려진 1931년의 중국 홍수에 희생된 사람은 400만인이었고, 2004년 인도양에서 일어난 쓰나미는 23만여 명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15만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일어난 쓰나미는 1만천여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그에 비해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군인만 수천만 명이 전사했고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했다. 한국 전쟁에서도 군인과 민간인 약 3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화산과 지진을 제외한 다른 자연재난은 인간의 잘못 때문에 그 피해가 크게 가중된다"며 "이미 18세기 리스본 지진과 관계해서 스위스 정치학자 장 자크 루소(J. J. Rousseau)는 리스본에 사람들이 건물을 5층으로 높이 지었기 때문에 피해가 늘었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손 교수는 "자연재난처럼 보이는 것 가운데도 실제로는 인재인 것들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구온난화로 세력이 강화된 태풍, 폭우, 가뭄, 폭서, 혹한 등의 자연재해의 피해는 지구온난화에 별로 기여하지 않은 투발루나 몰디브 등이 받고 있다. 이는 전혀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 인류가 져야 하되 특히 미국 등 선진국 국민들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며 오염물질 배출량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한국인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후쿠시마 지역과 일본도 장기적으로는 쓰나미보다 원전의 방사능으로부터 더 큰 손실과 고통을 당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우리는 자연재난을 막을 능력은 없지만 그 피해를 줄일 책임은 있다"며 "다른 사치를 축소하더라도 재난을 예측하고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며, 재난이 일어났을 때 구조할 수 있는 장비, 훈련, 시설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자연재난이 일어났을 때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구호활동을 펴는 것은 모든 시민들의 윤리적 의무이지만 특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임무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최고 가치로 인정하는 분위기와 여론 형성에 앞장 서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의무라 할 수 있다"며 "이런 활동에 적극성을 보여야 기독교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으며 그런 가치를 문화에 심을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한편, 이날은 손봉호 교수 외에 이외 김영한 교수(한복협 신학위원장,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김윤희 교수(한복협 여성위원장, CCC 상근이사), 박종화 목사(한복협 중앙위원, 경동교회)가 각각 신학적·성서적·목회적 관점에서 발표했다.

오상아 기자

제 127회 세계 기도일 예배

주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하라
(예배문 작성국 : 이집트)

세계기도일은 이민자들을 돕기 위하여 1887년 미국 다윈 제임스 여사에 의해 시작됐으며 180여 국가의 세계 여성들이 **초교파적**으로 함께 모여 **매년 같은날 같은 주제로 기도**하는 기도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민자들의 희망과 공포, 기쁨과 슬픔, 기회와 필요를 나누고 돕는 세계기도일에 많은 교회와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합니다.
금년 **127회 세계 기도일**은 다음과 같이 <이집트>에서 작성한 기도문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하라!>**라는 주제로 기도회를 갖습니다.

- 일시 : **2014년 3월 1일**(토) 오전 **10:30**
- 장소 : **미주 평안 교회**(임승진 담임목사)
- 주소 :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 전화 : (714) 331-6048

세계기도일에 드려진 헌금은
이집트 어려운 여성과 청소년들을 돕는데
쓰여집니다.
회장 : 최미란 권사(714-331-6048)

미주 한인교회 여성연합회-남가주지부

성지순례 여행사들 "한국인 아닌 관광객 노린 테러"

"현 정권에 피해주려 한 듯… 코스에서 이집트 배제할 것"

기독교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들은 이번 이집트 폭탄테러 사건에 대해 대체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현지 사정을 잘 아는 A여행사 대표는 "이집트는 GDP의 17%가 관광수입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는 철저하게 피해를 주지 않았었고, 성지순례 관광객을 태운 버스들은 무장 군인들이 직접 호위하고 있다"며 "이집트에서는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국인들을 노린 게 아니라 단순히 관광객을 노린 테러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인명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걸 보니 폭발력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다"면서도 "블루스카이 트래블 제진수 대표는 30여 년간 현지에서 가이드를 했던 유능한 사람이고, 저도 늘 그 분과 함께 일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집트 카이로에 있던 현지 성지순례팀을 요르단 암만으로 긴급 이송 조치했다는 대표는 "사건이 생긴 후라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겠지만, 여행 제한 조치가 내려졌으니 이집트는 이제 성지순례 코스에서 빠질 것"이라며 "성지순례 코스에서 이집트 쪽은 시내산 한 곳밖에 없어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B여행사 팀장은 "이집트 치안 문제가 불거진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서 요즘에는 이집트를 잘 안 들어가고 이스라엘과 요르단 중심으로 성지를 순례하고 있다"며 "시내산을 제외하면 이집트에서 성지순례할 곳은 별로 없고, 지금 저희 여행사에서 이집트에 나가 있는 성지순례객도 없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성지순례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바로 옆나라이기 때문에 조건이 용이하다 보니 출애굽 코스 개념으로 시내산을 중심으로 여행이 이뤄진다"며 "관광 개념으로 유명 여행지인 피라미드 등을 함께 관람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C여행사 대표는 "사고 지점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국경 지대의 출국 수속 장소로, 짐을 내리는 도중이라 잠시 문을 열어놓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다"며 "현 정권을 반대하는 세력이 현 정권에 피해를 입히기 위해 관광객 대상 테러를 감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내산

이대웅 기자

"여행제한구역 아니었다… 일방적 비난은 삼가야"

선교 관계자들, 성지순례에 안전 최우선으로 할 것 강조

한국인 이집트 성지순례객들을 태운 관광버스에 테러로 사상자가 발생해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위험 지역에 굳이 가야 했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동지역 선교 관계자들은 "외교부나 혹은 선교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현지 안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동선교회 홍계현 목사는 "이집트 시나이 반도 지역은 15일 전까지 2단계 여행경보구역이었는데 15일에는 3단계 여행제한구역으로 바뀌었다. 교회측에서 이번 순례여행을 진행하면서 여행사와만 연락을 한 것이 아쉽다. 교회가 정부와 외교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에 대한 안전 정보를 잘 알아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홍 목사는 "성지순례는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가야 한다고 본다. 특히 버스를 대절해 대규모로 이동하는 것은, 경비 면에서는 좋지만 안전 면에서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인원을 소수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 또한 순례를 할 때에는 안전한 지역부터 차례대로 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측은 "현재 이집트를 비롯해서 북아프리카 지역에 이슬람 강경주의자들이 득세하면서 공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그 땅에 평화와 자유가 찾아오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집트가 박해국가인 상황에서 그 나라의 요구도 있겠지만, 선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분들이 성지순례 개념으로 여행을 하신 것이다. 여행제한구역에 공격적인 선교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사실 현지에서 크리스천들이 테러를 당하는 일은 빈번하다. 이번에 간 분들과 박해받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두 한 몸인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박해받는 지역에 대한 기도와 관심도 커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의 김진대 사무총장은 "여행사에 의뢰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다. 2년 전에도 한 목사님을 비롯해서 한국인들이 하루 정도 억류됐다가 풀려난 일이 있었는데, 안전을 더 챙겨야 한다고 본다. 특히 많이 몰려다니면 눈에 띄기 쉽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우리 재단에서 발행하는 최신 위기정보에도 시나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무르시 대통령이 쫓겨난 후에도 무슬림형제단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으며, 알카에다도 활동 지역을 넓혔다. 위기관리재단에서 이러한 정보 제공 및 교류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역 교회까지 파고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슬픔 당한 유족·교회 향한 악플, 또다른 테러와 같아"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16일 이집트 성지순례객 폭탄테러에 대해 '테러는 인류평화에 대한 도전이자 배신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16일 이집트 북부 시나이반도 타바시 인근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테러를 규탄한다"며 "테러는 어떤 명분일지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 행위로, 문명화된 현대에 가장 야만적인 행동이며 인류 공동의 적이자 인류평화를 기원하는 세계 인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배신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가 우려하고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종교인들이 그들의 잘못된 교리에 의해 종교적 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고한 인명을 무차별 살상하고 시설을 파괴하는 일"이라며 "이같은 반인류·비인도적 행동이 종교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권장되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고, 이는 종교의 보편적 가치에도 합치될 수 없으며, 국제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할 행위"라고 성토했다.

또 "국제사회는 이들을 규탄하고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테러로 슬픔을 당한 유족들과 교회를 향한 인터넷 등에서의 악플은 같은 민족과 이웃으로서 할 수 없는 또다른 형태의 테러이다"라고 강조하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교회언론회는 "희생으로 슬픔을 당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기도하며, 교회는 위축되지 말고 더욱 믿음으로 정진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대웅 기자

"1년 6개월 동안 준비한 순례의 길 마지막일 줄은…"

이집트 성지 순례 중 폭탄 테러로 사망한 충북 진천중앙교회 김홍열(63·여) 씨의 소식을 접한 인근 주민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다.

지난 16일 오후 2시 40분(현지시각) 이집트 동북부 국경지역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기 위해 출국 절차를 밟던 중 폭탄 테러로 이 교회 김 권사 등 한국인 3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쳐 현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7일 진천중앙장로교회에 취재진이 몰리면서 김 권사의 소천 소식이 알려지자 유족과 이웃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김 권사의 유족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현지와 연락도 되지 않아 더 힘들다"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어머니는 신앙이 독실한 신자였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경황이 없다"고 말문을 닫았다.

김 권사의 한 지인은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 몇 년 전부터 계를 들어 매월 20만원을 모았다"며 "평생 소원인 이스라엘 성지를 다녀오게 됐다며 들떠 있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지 순례를 떠나기 전 본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을 몰랐다"며 말문을 잇지 못했다.

슬픔 속에 빠진 유족과 대책위원들은 18일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으로 떠났다.

17일 진천군에 따르면 김홍열씨의 딸 2명, 아들 1명 등 유족 3명과 진천중앙장로교회 대책위원 2명, 진천군 비상대책본부 관계자 1명 등 6명이 18일 오전 1시 비행기로 출발했다.

이들은 현지 병원을 방문해 김씨의 유해 송환과 부상자들의 귀국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진천 중앙장로교회는 18일부터 신도들이 조문받을 수 있도록 교회 내에 빈소를 차렸다.

한편 진천중앙장로교회 성지순례단에 대한 테러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변 교회들의 성지순례 일정 취소 및 변경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진천 덕산장로교회는 18일부터 26일까지 계획한 이집트로의 성지 순례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덕산교회는 사망한 김 권사를 애도하고, 부상자의 무사 귀환을 기도할 예정이다.

증평군 내 한 교회는 오는 26일까지 해외 성지 순례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 출국했다. 이 교회는 진천중앙장로교회 소식을 접하고 여행사와 협의해 이집트 대신 안전지역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박대웅 기자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 행 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맹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 : (213) 402 - 5136
E-mail : chdailyla@gmail.com /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산타페 언어 · 문화 교육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부설)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926.1023 | Fax 562.926.1025 | office@ptsa.edu www.ptsa.edu

ESL 과정
산타페 언어 · 문화교육원이 속한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PTSA)는 가주교육국(BPPE) 인가기관, 성서대학협의회(ABHE) 정회원, 신학대학원협의회(ATS) 준회원 학교로 I-20 Form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F-1 Visa를 위한 I-20 Form 정식 발급!!
✓ 원어민강사로만 모든 수업 진행.
✓ 담당 교수제를 통한 철저한 학습관리.
✓ 다양한 어학프로그램 및 시설.
✓ Conversation Partner 프로그램을 통한 일상회화 집중 향상.
✓ ESL 과정 수료 우수 졸업자 Internship 소개.
● 자유로운 수업 선택 :
주간 종합반, 야간 종합반, 주중 집중 종합반, 단과반으로 구성.
싼타페 언어 · 문화교육원 ESL 과정은 전세계 130여 개 캠퍼스, 35,000여 명의 수강생을 확보하고 있는 'English Miracle'의 과학적 영어어학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 영어로 배우는 스페니쉬 강좌도 있습니다. 별도문의
문의 전화 : 562-926-1023 Director 강우중 교수 (wjkang@ptsa.edu)

8주 완성 웹사이트 제작 과정
워드프레스보다 쉬운 XpressEngine (XE보드, 구 제로보드)
초보자도 문제없다! 컴퓨터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초보자도 만들수 있는 쉬운 웹사이트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웹사이트 제작을 위한 포토샵 CS6 에서 배너 만들기 제작 과정 포함!!
✓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픈소스를 적용하여 공개적으로 프로젝트를 운용함으로써 누구나 사용하고 누구나 개발에 참여, 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웹사이트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한글을 사용하여 한국인에게 Word Press보다 훨씬 편하고 결과물이 만족스럽습니다. 목회자, 전도사, 신학생, 편집 디자이너, 일반인 환영!!
지난 1월 21일 '두 시간만에 끝내는 웹사이트 제작' 공개강연에 참석해 주신 분들 중 현재 3분이 공개강연만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하셨습니다. 상담 : mermaidk@naver.com
● Photoshop CS6 / Dreamweaver CS5 (CSS Style, HTML 코드 강화) Flash CS5 (애니메이션, 액션스크립 실무) 강좌 별도문의
상담 전화 : 714-576-0901, 213-909-2371

〈서승원 박사 특별 기고〉

아가페와 필리아(3)

서승원 박사
바이블아카데미 원장

주전 5세기와 4세기 즉 클래식 시대의 문헌에는 "아가파오"란 말이 드물게 사용되었고, 그 뜻은 "사랑하다"가 아니라 "소중히 여기다"(cherish, treasure)로 쓰였다. 그러니까 이 동사가 "사랑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된 것은 주전 3세기에 들어서라고 할 수 있다. 70인역 성경의 역자들이 "아가파오"가 "사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이들이 희랍어의 흐름과 변화에 퍽 민감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70인역 성경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희랍어로 번역한 것이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당시의 알렉산드리아에 헬레니즘(Hellenism)이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특히 희랍고전작품들의 수집과 편찬 그리고 주석에 있어서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 곳에 있던 도서관은 당시 세계 최대 규모였다. 필라델푸스 때에 벌써 장서가 5십만 권에 이르렀고, 주후 47년에 이 도서관이 불타게 되었을 때 장서는 약 7십만 권에 달하였다고 한다.

70인역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한 것이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 BC3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는 유대인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라는데 대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즈음에는 70인역 하면 으레 희랍어로 번역된 구약성경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원래는 모세5경만을 의미했다. 70인역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BC2세기에 쓰였다고 추측되는 아리스테아스의 편지(Letter of Aristeas)에 근거한 것이다.

이 편지에 의하면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장 데메트리우스(Demetrius)가 프톨레미 2세인 필라델푸스(Ptolemy II Philadelphus: 283-246)에게 모세5경을 번역하여 도서관에 보관하자는 건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필라델푸스는 그의 건의를 받아들여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의 대제사장 엘레아자르(Eleazar)에게 편지를 보내 모세5경을 번역할 사람들을 보내어 달라고 요청하자, 엘레아자르는 12지파에서 6명씩 선출하여 이들을 알렉산드리아로 보내었고, 이 72명의 번역위원들에 의해서 모세5경의 번역작업은 72일 동안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요즈음 학자들 가운데서 이런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는 없다. 다시 말해 이 문서는 사실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픽션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픽션이라고 해서 그것이 전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한 허구인 것은 아니다. 더러는 사실로 간주해도 좋을만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요즈음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도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희랍어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을 위해 처음에는 모세5경만이 번역되었을 것이고 그 후 점차적으로 구약전체가 번역되기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따라서 구약전체를 번역하는 작업은 상당히 긴 세월에 걸쳐 이루어졌을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그 작업이 약 3세기 동안 계속되었으리라 보는 학자들도 없지 않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기 전부터 70인역이 비단 알렉산드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흥미 있는 것은 신약의 저자들이 대부분 70인역 성경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가페"를 신적인 사랑으로 사용한 70인역의 전통을 이들이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신약이 구약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그것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한 하나의 예증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5. 아가파오와 필레오는 둘 다 동일한 히브리어 동사 '아하브'의 번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희랍어가 아닌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이었다면, 세 번의 질문에서 사용하신 단어는 모두 "아하브"였을 것임이 틀림없다. 예루살렘에서 출판된 히브리어 판 신약성경에도 "아하브"란 단어가 세 질문에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서의 저자 또는 요한복음 21장의 저자가 본문에 기록된 대화를 희랍어로 번역할 때 처음 두 질문에는 "아가파오"를 사용하고 마지막 질문에는 "필레오"를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처럼 두개의 상이한 단어를 같은 뜻으로 사용한 것은 "사랑하다"라는 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매번 질문을 하신 후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면 "내 양을 먹이라" 또는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 다음에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두 번째 질문 다음에는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내 양을 먹이라"에는 "보스코"(βόσκω)라는 동사가, 그리고 "내 양을 치라"에는 "포이마이노"(ποιμαίνω)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하나는 "신과 같은 목자로서 또는 신적인 사랑으로 내 양을 먹이라"라는 뜻으로, 다른 하나는 "인간적인 목자로서 또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내 양을 치라"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이 두 단어의 모양은 달라도 뜻은 동일하다. 다시 말해 둘 다 "양을 치다" 또는 "양을 먹이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라아"(h[;r;) 동사 하나뿐이다. 따라서 위에서 상정한 대로 이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를 사용하셨다면 세 번 다 "라아" 동사를 사용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처럼 두 개의 상이한 단어를 동의어로 사용한 이런 예는 이 두 경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양"이란 말도 처음의 경우에는 "아르니아"(□ρνία)가 사용되었지만 다음의 두 경우에는 "프로바타"(πρόβατα)가 사용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촌"(@aOx)과 "에데르"(rd,[e)이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가축을 뜻하는 말로 "바카르"(rq;B;)와 "미크네"(hn〈q]mi)가 사용되는데, 전자는 소, 말, 나귀 등 큰 가축들을 지칭하는 말이고 후자는 소, 양, 말, 나귀, 낙타 등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촌"과 "바카르"가 집합명사로 쓰이지만 드물게는 이 두 명사가 "에데르"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에데르"는 큰 무리를 뜻한다. 이런 예는 욜 1:18에 나온다. 이외에 흔히 짐승을 뜻하는 말로 브이르(ry[iB])가 있는데, 민 20:4, 11에서와 같이 이 말이 가축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 외에 양을 뜻하는 말로 "탈레"(hl,f;)와 "케베스"(cb,K,), "세"(hc,)가 있는데, "탈레"는 일반적으로 "양"을, "케베스"는 보통 "어린 양"을 그리고 "세"는 보통 "양" 또는 "어린 양"을 뜻한다. 그리고 "탈레"는 삼상 7:9와 사 65:25 두 군데 나오고, "케베스"와 "세"는 여러 번 나온다. 하지만 이것들은 집합명사가 아니라 개체명사들이기 때문에 "양무리"라는 뜻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그리고 양무리라고 번역될 수 있는 "탈레"(hl,f)의 복수형인 "틀라임"(!yail;f])은 사 40:11에 단 한 번 나온다.

〈계속〉

5만 번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면

남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기도를 한다는 분들이 늘 이 분의 이야기만 나오면 주눅이 드는 그런 분이 있다. 바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분이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기도 응답받기도 어려운데 이 분은 한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 그가 93세까지 산 것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최소한 하루에 두 번씩은 기도 응답을 받았어야 한다. 기도한다고 하는 분들이 이 분의 이름만 나오면 부러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 만일에 우리의 삶에 하루에 두 번씩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감격이 매일 새롭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능력있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죄된 본성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에게 관심을 쏟지 않고, 응답받는 제목에만 관심을 쏟게 된다.

기도 응답에 대한 감격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같은 사람에게 매일 하루에 두 번씩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크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한평생 기도 응답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어느 집사님이 드디어 21년만에 남편 구원해 달라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크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당연히 후자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같은 자들에게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복이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 할 때, 얼마나 많이 응답받았느냐로 평가한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은 얼마나 많이 응답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흥이 새롭게 일어났느냐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감격하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새로워 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도 5만 번이 아니라 10만 번의 기도의 응답도 주실 것이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정성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다. 내가 이 정도로 열심을 내어 기도했기에 기도가 응답되었다가 아니라,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 없고 형편없는 자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주셨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면 우리는 기도 응답의 결과에 상관 없이 기도 자체를 통하여 감격할 수밖에 없다. 기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사인이며, 기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공급받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관철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내기 위하여 나아가기는 기도가 아니라, 내 영혼의 창문을 열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기도가 될 때 나에게는 기도의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기도 자체가 복이 된다.

그래서 기도는 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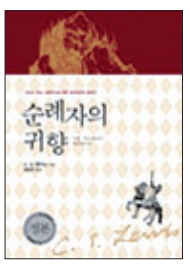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순례자의 귀향

C. S. 루이스 | 홍성사 | 320쪽



'기독교, 이성, 낭만주의에 대한 알레고리적 옹호서'라는 부제가 붙은, 저자의 자전적 소설이다. 회심 후에 가장 먼저 쓴 글로, '천로역정'을 모티브로 했다. 프로이트주의, 세속적 교양, 현대화된 종교, 휴머니즘, 이상주의, 마르크스주의, 물질주의와 다양한 철학들에 대한 루이스의 예리한 평가도 녹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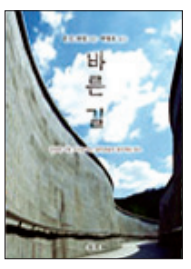
아낌없이 드립니다

신필수 | 생명의말씀사 | 247쪽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것을 사랑하는 이 세대를 거꾸로 살아가는 어느 목사의 이야기다. 화려한 자기 예배당은 없어도, 그가 세운 교회는 이미 수십 곳에 이른다. 그에게 교단의 장벽은 그리 중요치 않다. 첫 번째 세운 지교회도 다른 교단의 교회였다. 그에게는 교단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바른 길

존 C. 라일 | CLC | 632쪽



리버풀 주교 시절 저자가 성직자들 모임과 교구 회의에서 행한 설교를 모았다.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역자들 간의 교제를 통한 영적 삶이 중요함을 확신하며, 이것이 사역자들을 견고케 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을 굳게 세울 것을 설파한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케네스 E. 해긴 | 베다니 | 168쪽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여섯 가지와 예수님의 기도 원리, 바울과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기도, 기도 속 하나님 뜻 알아보기 등의 실천적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면서, 기도 속에 먼저 그 분에 대한 첫 사랑을 회복하고 이를 전해야 할 사명을 재확인시킨다.

REVIEW

비기독교인이 기록한 中 지하교회의 순교, 그리고 생존

그들은 어떻게 그 엄혹한 시대를 견뎌내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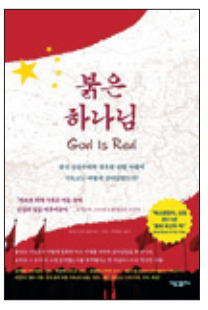
새물결플러스에서 나온 〈붉은 하나님(God Is Red)〉은 바로 이 미국인들이 절망했던 시기, 즉 '문화대혁명' 전후 40여 년의 핍박 기간 동안 중국 지하교회들이 벌인 처절한 사투를 다루고 있다. 이 박사도 각주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저널리스트이자 시인인 반체제 활동가 랴오이우(廖亦武)가 공안의 감시 가운데서 중국 곳곳을 찾아다니며 그 시절의 증언을 담아낸 기록이다. 제목의 '붉은'은 중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들이 흘려야 했던 많은 피를 상징하기도 한다.

책에는 상하이 인근 큰 규모의 의과대학 학장직을 포기한 채 시골 지역으로 가서 병든 이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 선생, 베이징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활동했지만 남부 저장성에서 복음을 전하다 투옥된 쉬 목사, 복음을 전하다 처형돼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20세기 기독교 순교자' 10인 중 한 사람으로 동상이 세워진 왕즈밍 목사, 21년간 옥살이를 해야 했던 가정교회 지도자 위안시양천 목사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랴오가 '비기독교인(넌크리스천)'이라는 데 있다. 랴오는 중국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추적하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악한 앞잡이들'이 전하는 종교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다. "그들의 이야기는 동과 서가 만나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는 이 시대에 나로 하여금 이 책을 쓰도록 몰아붙였다." 비기독교인이기에 감상에 빠지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태도의 일관이 아닌, 지하교인들의 신앙과 핍박, 순교에 주목하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중국 지하교인들이 힘겹게 지켜낸 중국 기독교의 '어제'를 토대로 '오늘과 내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점이다. 시골 소수민족인 이족과 먀오족 마을에서 기독교는 그들의 전통음식 '캬오바'만큼이나 그들의 삶 속에 친숙하게 자리해 있다. 이곳의 기독교는 '토착 종교'라 할 만하며, 이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이 됐다. 서로 다른 두 문화의 충돌이 아닌, '중국적 특성을 가진 새로운 기독교'가 자리한 것이다. 반면 도시의 기독교는 서구적 특성을 띠며 부흥하고 번창했다. 새로 회심한 이들은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나 은퇴자들로, 품질 좋은 코카콜라나 폭스바겐을 받아들이듯 서구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다.

좀 더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서구식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최신 유행'이라 생각하는 상황에서, 랴오는 묻는다. "부와 물질적 안락에 사로잡힌 중국 대도시의 불안한 인민들에게 기독교는 과연 참 평안을 주는 영혼의 항구가 될 수 있을까? 기독교는 분명 쉬·선 선생 같은 이들의 인생을 변화시켰다. 아니면 불교와 도교가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 또한 전체주의 권력에 순응하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신앙이 되고 말 것인가?"



붉은 하나님
랴오이우 |
새물결플러스 | 332쪽

읽는 내내 떠올랐던 것은 차로 1시간이면 닿을 거리의 북한 주민들, 그리고 지하교인들이었다. 40여 년의 핍박도 이 정도의 이야깃거리를 만들었는데, 70여 년째 계속되고 있는 저들이 해방되면 얼마나 더 끔찍하고 잔인한 핍박과 고통의 이야기가 들려오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이나 개방화가 진행된 후 훨씬 나은 조건에서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궁금증도 생겨난다.

마침 개봉을 앞둔 〈신이 보낸 사람〉은 이를 약간이나마 구체화시킬 좋은 계기이다. 북한 지하교회의 절규와 희생, 절망과 희망을 담은 이 영화는 "남조선이 정말 가나안입네까?"라는 한 마디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처지를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며, 그들을 위한 기도와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이번 2월에는 이 책을 읽고 그 영화를 감상하면서, 북한 기독교인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

이대웅 기자

“앎과 삶의 격차 줄여야… ‘남의 답’엔 힘이 없다”

30대 그리스도인 위한 「서른통」 펴낸 김남준 목사

‘서른 즈음에’ 흔들리는 젊은이를 위한 〈서른통〉을 펴낸 김남준 목사.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가 ‘서른 즈음에’ 흔들리는 젊은이들을 위한 〈서른통〉을 펴냈다. 부제는 ‘결혼과 직장 때문에 고달픈 젊은 그리스도인들과 통한 이야기’. 그는 책을 통해 “교회를 개척해서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교인들을 심방하면서,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를 해마다 새롭게 깨닫고 있다”며 “성도들에게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의 괴리는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 사이의 괴리 만큼이나 중차대하고도 현실적인 문제”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책이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의 격차를 줄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선교적인 삶으로 흘려보내는 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제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이 될 것”이라 전하고 있다.

책에서 김남준 목사는 직업을 놓고 소명과 선택, 직장에서의 윤리적 갈등과 신앙적 갈등을, 결혼에 대해선 배우자 선택과 연애, 신앙과 출산, 고부간 갈등, 독신과 교회 내 연애 등에 대해 최대한 현실적으로 조언하면서, 30대 뿐 아니라 직장과 결혼 생활을 하는 장년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그에게 〈서른통〉을 쓰게 된 계기를 비롯해,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었다.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20대도, 40대도 아닌 30대를 위해 특별히 글을 쓰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요.

“30대는 취업과 결혼이라는, 인생에 급격한 환경 변화가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먼저 그간 부모에 의존해서 살다가 사회에 나가 직업을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결혼인데, 연애야 10대도 20대도 할 수 있지만 30대는 결혼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요. 두 사람에게 사랑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게 결혼이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에 많이 세뇌돼 버렸습니다. ‘현실적’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준비가 필요해졌고, 결혼이 늦어졌습니다.

또다른 이유는 직장과 결혼에 대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엄청난 간극 때문이었습니다. 그 간극 때문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청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생의 커다란 변화 앞에 서 있는 이들에게 기독교적인 답변을 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신앙심이 깊고 교리적·신학적으로 잘 정리돼 있으며 열렬히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굳이 이런 책이 필요치 않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해도 놀랍게 적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30대가 훨씬 많지요. 그들은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들어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완전히 따로 노는, 신앙생활의 피상성이 나타나지요. 이것이 깊어지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저항감도 심해집니다. 그런 이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에서 30대 젊은이 30명과 3시간씩 3차례 만났습니다. 그때 토론하고 답변한 내용들을 토대로 글을 쓰게 됐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 듣는 젊은이들에게도 신앙적 고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좌담회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런 것을 고민하나’ 하고 놀라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심이 깊은 이들은 적용도 굉장히 빨라요. 거기에 첫째 원인이 있겠고, 둘째로는 결국 인문학적 토대가 너무 부족해서 말씀에 대한 적응력도 떨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명절에 쉬면서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포함해 젊은이들 사이에 뜨고 있는 몇몇 철학자와 작가들의 책과 강연을 읽었습니다. 그들의 강연에 앉아있던 엘리트들의 질문이 굉장히 유치했어요. ‘자신이 전문직 종사자라면서 어쩜 저렇게 수준 낮은 질문을 할까, 저런 것에 대한 해답도 없이 저 나이가 들었을까’ 하고 놀랐습니다. 비슷한 현상들이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나’ 하는 기본적 고민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답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셋째로는 현대 사회에 대한 이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진공상태에 있을 수 없고, 결국 끊임없이 외부의 사물들과 소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딜 가도 소리는 들리고 냄새는 나고 감촉은 느껴지고 눈에 보입니다. 이것과 단절될 수는 없어요. 이런 사물들과의 접촉은 그나마 객관적이지만, 사람들과는 ‘도덕적’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자체가 거대한 자본주의와 쾌락주의로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인간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으며,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아야 올바른가’ 하는 근원적 고민들을 많이 해야 성경의 답이 커다란 감격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고민들이 충분치 못하면, 답을 얻는다 해도 자신이 찾아낸 것과 같은 깊이로 다가오지 못하지요. 이런 원인들 때문에 가장 쉬운 문제들에도 답할 수 없는 게 아닐까요.

2-3년 전 〈개념없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개념 없다’, 즉 눈치 없고 보편적이지 못한 인간이라는 관점이었는데, 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말로는 개혁신학 한다더니, 결국 자기계발서로 가는구나’ 하구요. 하지만 한쪽에서는 ‘그렇게 신학 책을 써 오던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책을 썼겠나’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말은 믿을 만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작품들을 계속 써 나가려 합니다. 〈서른통〉에 이어 훨씬 깊이 다루고 싶은 주제가 중년에 대한 부분이고, 여력이 생기면 문화·소비·육체·성(性)·직업 등 주제별로 다루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기독교적인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의 격차를 훨씬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하셨듯 요즘 상담이나 멘토, 힐링이 유행이지만, 신앙이란 실패하고 아프고 좌절해 가면서 스스로 길을 찾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이 내려준 답에는 힘이 없다.’ 그것은 마치 진통제 같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면 진통제라도 먹어야지요. 하지만 진통제는 병이라는 ‘현상’을 다소 경감시켜 주거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뿐, 질병의 근원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스스로 풀어가고 내면화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독서를 추천하지만, 사색과 반성이 따르지 않는 독서는 번뇌를 더할 뿐, 우리 삶을 고치질 못합니다. 깨를 예로 들면, 예전에는 참깨를 짜기 전에 볶아서 틀에 집어넣고 돌을 얹어 압축(프레스)을 했습니다. 여기서 독서가 볶은 깨라면, 사유(思惟)는 ‘프레스’입니다. 읽은 내용을 사유하고 반성하면서 그 지식이 기름이 되어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독서도 하지 않거니와 사유는 더더욱 하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기기들이지요.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것은 단적으로 말해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할 때 쓰지 않을 순 없겠지만, 거기에 몰입되거나 계속 자극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건 문제입니다. 자기 고민과 탐구가 없어지지요. 가장 나쁜 것이 SNS(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입니다. ‘쪼가리된 남의 이야기’들을 쉽게 쉽게 접하면서 그것만으로 정보를 섭취하는…,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지요. 요즘 아이들은 암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터넷에 다 있다고 한답니다. 이런 것들이 깊이 있는 사유의 현저한 방해물들입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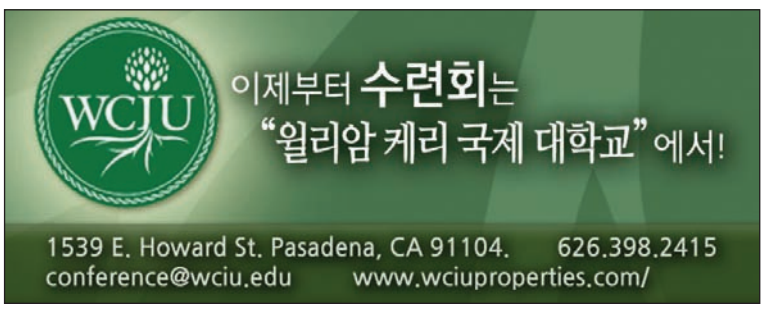
-그런 고민 속에서도, 결국 〈서른통〉을 쓰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몇몇 철학서와 강의들을 접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먼저는 그 영향력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펑펑 울어요(웃음). 교회에서는 문제 해결을 못하던 크리스천들이 거기로 가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답에 놀랍게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은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비록 제가 불신자라도, 저 대답대로 산다 해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서로 다른 답이 나오는 걸 보면, 그들의 경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상담가의 관점이 따로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지만,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휴머니즘(humanism), 즉 사람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은 우리 기독교와 현저히 다를 수밖에 없지요. 다른 세계관과 다른 인생관 속에 있으니, 다른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무신론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옳고 그름의 문제는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결정적인 부분에서, 과연 그렇게 했을 때 행복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답을 놓고 저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문제의 답을 교회가 솔직하고 분명하게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론과 사상이 탄탄하고 견고할수록, 대답은 아주 실제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론과 사상 없이, 실제적인 것들을 계속 내놓는다면 그러한 결론들을 따라간다 해도 자기계발이나 처세술을 넘어서긴 힘들 것입니다.

자기계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날 동·서양을 막론하고 널리 환영받는 것이 자기계발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중국 이쪽부터 시작해서 미국까지 자기계발 분야가 굉장히 강하지만, 프랑스나 독일 등 구라파는 좀 덜합니다. 그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요.

» 19면에 계속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왕자 김기형

휘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Western Ave Los Angeles.CA.90006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윌셔+킹슬리

페인팅 (PAINTING)
마루 (Hard-wood Flooring)
정직 (HONESTY)!
(213) 923-2915
U.S. ENTERPRISE Co.
*HAND MEN AVAILABLE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BSBFJ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 입니다!
퇴거.파산.이혼.이민.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칼라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SAMSUNG ELECTRONICS

Samsung ML-3312ND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야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쉽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텐 전문
가주
L.A. 커텐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WINDOW FASHION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번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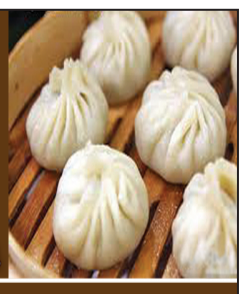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 돌 마 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찜질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렌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튠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 시온마켓 내 -
치우챠우만두
• 찐빵 • 고기만두 • 김치만두
• 야채만두 • 물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배달합니다.

CHIU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CA 90020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CA 90020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 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편도선염, 비염, 천식, 아토피의
"편강환"

서효석 박사 연구팀이 폐의 기운을 북돋운 결과, 폐질환은 물론, 피부질환까지 그 효능이 탁월해서 전세계인에게 보급시키고자 미국에 상륙시킨 편강환!
임상실험에서 그 효능이 입증된 증상들
* 목 감기(편도선염) * 기관지 확장
* 코감기 및 비염 * 폐기종
* 기관지염 및 천식 * 폐섬유학
* 어린이의 감기 예방 * 폐렴
* 아토피성 피부염 * 기미, 여드름, 주근깨, 검버섯

치매는 치매탕으로

특징
1. 인지기능을 상승시켜주는 아세틸콜린 농도 증가
2. 굳어지는 혈액을 풀어주는 PLASMIN 활성화되다
3. 치매의 원인이 되는 B - AMLYOID를 제거
4. 뇌세포를 파괴하는 산화스트레스 제거
5. 뇌의 혈류를 촉진시켜 영양과 산소 공급 증가
6. 임상에서 보여주는 사례

임상에서 보여주는 사례
1. 치매환자에게서 뛰어난 인지능력 개선효과와 기억력이 검증되었다
2. 뇌세포를 파괴하는 B-AMLYOID를 정상수준으로 유지되었다
3. ANTI-PLASMIN의 작용으로 혈액응고를 풀어주어 정상 수치 유지됨을 보았다
4. 염증반응의 조율기능이 향상되었다
5. 혈관 확장 능력의 회복과 혈액 흐름의 증가가 현저하게 개선됨을 보였다

편강 · 실로암 한의원 원장: Oh, Pyong Un
전화 : (213)427-0036, (213)675-8524, Fax: (213)427-0195
2641 W.Olympic Bl. #202 Los Angeles, CA 90006 www.siloamherbal.com

win HYUNDAI CARSON 윈현대 칼슨 HYUNDAI
"Grand Opening Sale"
• 그랜드 오픈닝 기간에만 특별가 제공 •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www.winhyundaicarson.com
15,000 스퀘어 피트 뉴쇼룸 오픈
브로커 환영

ashin@winhyundaicarson.com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 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 17면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의 계발에 열중하는데, 그 계발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계발은 자본주의적인 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본주의적이고 감각적인 시대의 기준에 맞춰, 모든 사람들이 탐내는 상품이 되게 하는 것이지요. 결국 그것이 자기계발의 초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각 사람을 어떤 사람은 지적(知的)으로, 다른 사람은 용모에서, 또 어떤 사람은 비록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탁월하게 창조하셨고, 누구나 쓸모 있는 그릇들로 창조하신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계발로 가자는 이야기의 맥락으로 〈서른통〉을 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과 인생관들을, 삶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접목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를 풀어내 보여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고민이 있어야 하고, 〈서른통〉이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물론 필요하지만, 사회나 교회나 거대담론이 사라져 버린 것 아닌가요. 목사님 같은 분이 이런 거시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셔야 할 텐데….

"제시하면 뭘 해요, 읽지를 않는데(웃음).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산다는 것(2012)〉이야말로 거대담론 속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다 좋은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구입합니다. 그러나 읽지는 않습니다. 〈서른통〉에 나온 이야기들도 결국 그 책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 책을 비롯해서, 〈깊이 읽는 주기도문(2013)〉 등의 책에 이미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고도 할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 상담이나 힐링 프로그램은 고통받는 젊은이들의 호소 때문에 생겨났을 텐데요, 예전에 비해 너무 나약해진 것 아닌가 하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꿈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자면, 소위 계시적인 꿈과 비전이 있고 자기계발적·자기암시적 비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 '종교 지도자'가 되려 했던 것은 자기계발적 비전이었지요. 그러나 요셉이 꾼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는 꿈'은 달라고 해서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따라 살겠다는 맥락에서의 꿈이 아니라, 자신의 희망사항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최고의 욕구'를 자기 실현이라고 했듯, '너 자신을 마음껏, 너의 꿈을 마음껏 펼쳐라, 그것이 너의 진짜 행복이다' 라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데, 그런 신앙을 배제한 인간 중심적 꿈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은혜를 받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왜 사랑하실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는 자각이 생기고, 그 자각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어떠한 가치를 발견했다면, 도전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성취하려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소명이 없는 사람들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대가 없이 그냥 얻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둘째로, 그것이 분명히 정해졌으면 힘을 내서 이를 이루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많이 나약해졌다는데, 신체적으로는 우리가 학생 시절이던 40-50년 전에 비해 훨씬 잘 먹어서 기골이 장대합니다. 오히려 비만을 걱정해야 하지요. 결국 나약해졌다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입니다. 권투선수들이 90kg 나가는 것과 밥 먹고 매일 노는 사람이 90kg 나가는 것은, 같은 체중이지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결국 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육체적으로 강해지려면 계속 운동을 해야 하듯, 정신적으로는 책을 읽으면서 지성을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계속 참아내면서, 끊임없이 견뎌내면서 오는 내적인 힘의 축적이 있어야 합니다.

결핍 속에 살던 예전에 비해 가난을 견디고 시련을 이기려 몸부림치던 정신운동의 근력이 너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너무 풍요한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다음으로는 지성적으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한글을 떼고 나면 소년소녀 세계문학전집을 기본으로 읽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듯, 중학교에선 모두 소설책을 갖고 다녔어요. 여학생들을 만나도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쓴 〈설국〉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이런 걸 이야기해야 '말발'이 섰습니다(웃음). 한 마디로 (그런 책들을 읽지 않으면) 체면이 서질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대신 감각적인 것들만 막 들어옵니다. 영화에 푹 빠진 사람들이 책을 읽겠습니까? 책이 주는 만족이 3D, 4D 영화의 감각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감각적인 것으로 자신을 채우다 보니 인내하면서 책을 읽기가 더 힘듭니다. 어려운 책은 더더욱 읽을 수 없어요.

이런 영향이 교회에까지 들어와서 '생각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설교가 '오프라 윈프리 쇼'처럼 감동적이길 원하지, 깊이가 있어 무언가 나의 사고방식을 깨뜨리고 새롭게 말씀으로 빚어주길 원하진 않습니다. 결국 그러니 깊어질 수가 없지요. 한 신학자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한 이론과 사상의 체계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쉽게 이단으로 흐르거나 부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쉽지는 않겠지요. 교회와 사회가 따로 노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6일간 사회에서 놀던 사람이 주일에 교회에 왔다가, 끝나면 다시 사회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회를 한 번에 바꿀 순 없습니다. 서서히 바뀌어야 할 텐데, 결국 교육 전반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좋은 대학 가려고'라고 합니다. 중학생들은 '좋은 고등학교'라고 답하지요. 강남엘 가면 5세부터 서울대학교 가는 프로그램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대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지만, 직장을 다니기 위해, 삼성에 들어가고 싶어서일 겁니다. 삼성 직무평가에 몇십만명이 몰리고, 이를 위한 과외 수강생만 20만여명이라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앞에 쓰인 'VERITAS LUX MEA(베리타스 룩스 메아·진리는 나의 빛)', 이것이 지금 통합니까? 진리를 인정이나 합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판단 없이 똑같이 살아가니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나 삶의 방식이 똑같아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서 살아남는 사람은 누리고 패배한 사람들은 루저(loser)가 되는 사회구조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단번에, 혁명적으로 바꿀 수는 없더라도 말입니다.

결국 한 사람이 인생관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거짓말이 너무 싫고,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저항이 생겨납니다. 자신을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 반대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도 그러거나 말거나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삶은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주관을 갖고 살아가려면, 결국 그렇지 않은 것들과의 끊임없는 투쟁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해결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 시작은 교회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차근차근 가르쳐야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끊임없이 독서하고 교리를 배우고 학문을 탐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식과 사색을 겸비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대웅 기자

시리아 이슬람 지도자, 기독교인 석방 촉구

시리아의 유명 무슬림 학자가 현지 이슬람 무장세력들에게 인질로 잡은 기독교인들을 석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셰이크 모함마드 압델 하디 알 야쿠비(Sheikh Mohammad Abdel-Hady al-Yaaqubi)는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C) 본부인 에큐메니컬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야쿠비는 시리아 정부에 반대하는 야당과 반군 세력을 지지하고 있는 이슬람 지도자들 중 한 명이다. 그는 이 날 아랍어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모든 이슬람 군사들은 부당하게 감금되어 있는 이들을 모두 즉시 석방하고, 특히 무고한 주교들과 수녀들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슬람 군사들의 기독교인 납치는 당황스러운 사태"라며 "이는 이슬람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존중심을 드러내야 한다. 어떤 종교인들도 굴욕과 납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시리아에서는 작년 4월 시리아정교회 지도자인 마르 요한나 그레고리오스 이브라힘 대주교와 그리스정교회 폴 야지기 대주교가 알레포 인근에서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이어 12월에도 가톨릭 교회의 수녀 12명이 납치됐다.

WCC 지도자들과 시리아 야당 지도자들이 에큐메니컬센터에 모여 대화를 했다.

이외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전으로 인해 정국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 이슬람 무장세력들에 의해서 납치되거나 살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야쿠비는 이 같은 사건들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WCC가 최근 시리아 평화를 위해 열린 유엔 제네바 2 회담에 참석한 시리아 정부와 반군 양측에 보낸 화해 요청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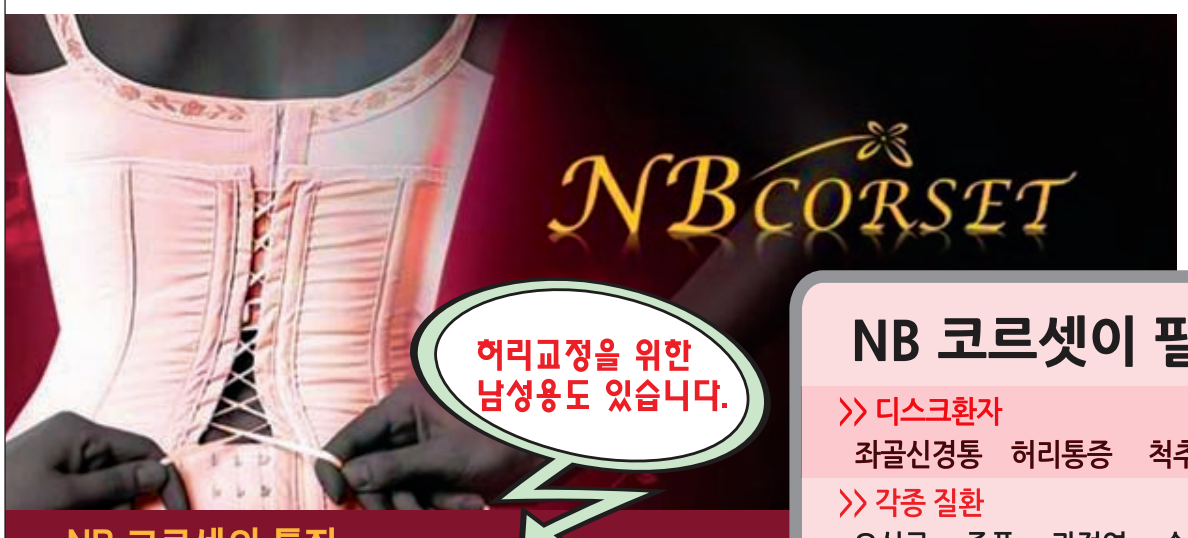
한편, 제네바 2 회담은 두 번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의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끝이 났다. 이 날 기자회견과 함께 이뤄진 시리아 야당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 울라프 퓍세 트베이트 WCC 총무는 "제네바 회담에서 모든 당사자들의 목표는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을 당장 멈추는 것이 되어야 한다"며,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이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회담에 앞서 유엔에 전달된 WCC의 성명은 "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무력충돌과 적대행위를 중단하도록 모두가 협력해 줄 것"과 "시리아를 재건하고 정의로운 평화를 건설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트베이트 총무는 이에 이 날도 야당 지도자들에게 시리아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시리아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트베이트 총무는 "우리는 시리아에서 정의로운 평화가 이뤄지길 소망하고 있다. WCC는 이 같은 비전에 헌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시리아의 평화를 위해서 종교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종교 지도자들로서 우리가 기적이란 것이 일어날 수 있고 평화가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야 한다. 우리가 아니면 이러한 일을 누가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손현정 기자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걸작품입니다.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의 인체에 완벽한 섬유+세계 특허 이중 지퍼사용 한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등록된 옷.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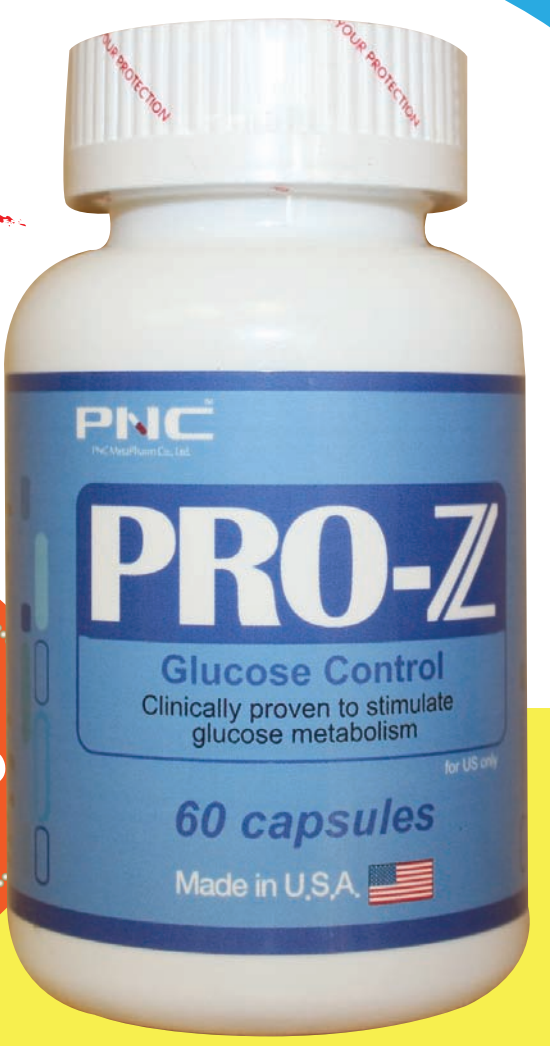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깁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나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CORSET Tel: 323.316.6815
WWW.nbcorset.co.kr 3456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지긋지긋한 당뇨병 탈출

평생을 안고가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췌장의 인슈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신제품
소비자가 $76
* 한국에서는 $120에 판매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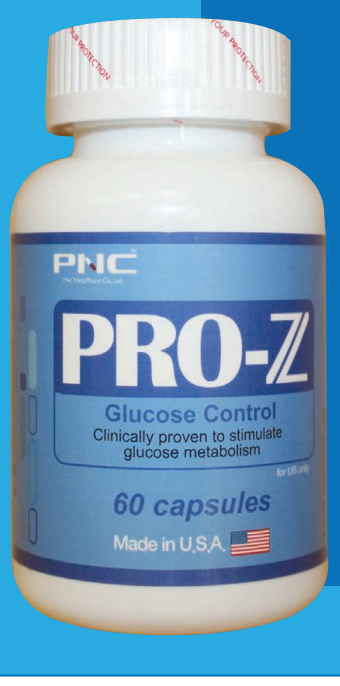
!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 개선을 PRO-Z가 해결해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 데 그쳤으나 PRO-Z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확실히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재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프로지 효능사례

박 OO 장로(당뇨 15년) :
프로지를 아침, 저녁 하루 2알을 1달 정도 복용 후에 차츰 당 수치가내려가 지금은 정상인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짐. 몸이 부어 걷기 불편했는데 붓기가 가라앉아 지금은 걷는데 지장이 없어 졌습니다.

박 OO 목사(당뇨 20년) :
프로지를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 3알을 2달간 복용하니 차츰 당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 했습니다.
서서히 내려가던 당이 3개월째는 정상인 수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혈당 조절을 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인슐린 주사도 끊고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2알만 먹습니다.



이 OO 집사(전립선) :
전립선이 심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서 있고 앉아 있는 것도 너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프로지를 하루 3알 2달간 복용하고 나서 고통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타민 처럼 하루에 2알씩 꼬박꼬박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정 OO 집사 :
몸이 늘 피곤하고 무겁고 입안에 입병이 자주 났었는데, 프로지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알씩 한달 정도 먹고 나니 피곤하고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덜해졌습니다. 4개월 정도 먹고 있는 지금은 입병도 거의 안 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제 몸에 부족했던 아연이 보충이 되니 만성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을 하며 주위 분들에게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과 대학 박사로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미국 FDA에 치료약으로 신청중이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업계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소한 6개월 복용시 췌장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확신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프로지 셀러 모집중

프로지 판매처

당뇨 전문 치료 한의원
실로암 한의원
Tel . 213.427.0036
2641 W.Olympic Bl. #202
Los Angeles, CA 90006

621 S. Virgil ave. Suit 260
Los Angeles CA 90005

213.434.1170

당뇨병의 원인 치료개선제
PRO-Z